

〈인간과 사회〉 워크북

2011년 개편

본 자료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제작된 〈인간과 사회〉 워크북의 “초고”입니다. 이 워크북은 이후 출판부와 학과, 저자에 의해 총 7회 가량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초고”에 담겨 있는 정보는 최종 출판된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교정되어지지 않은 “초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저작권 관련한 문제로 온라인에 초고를 게시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에 개편된 〈인간과 사회〉 교과서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워크북’을 구하셔야 합니다.

학습안내

이 워크북은 교양 『인간과 사회』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펴낸 보조교재이다. 시간에 쫓기며 학습하는 학생들의 면학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본 워크북은 각 단원별로 교재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풀이하고, 일부 단원에서는 심화보충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의 학습 분량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재의 핵심을 간추리면서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히 덜어내어 핵심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다만 지나친 요약으로 이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문맥에 맞게 서술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썼다. 맥락없는 암기는 일시적인 학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워크북을 교재 학습 전에 읽어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원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교재 내용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가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된다. 따라서 심화보충학습에서는 교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교재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현대 사회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와 워크북을 병용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여 인간과 사회를 보는 나만의 식견을 획득하시기 바란다.

제1장 인간과 사회를 보는 몇 가지 관점

사회학이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이다.

사회실재론은 사회라는 것이 개인들의 합 이상의 출현적(emergent) 속성을 가진 실체라고 생각한다. 개개 구성원들의 특성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속성을 사회구조가 지닌다는 것이다. 사회실재론의 입장을 지닌 대표적인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에 따르면, 사회는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여 우리를 구속한다. 따라서 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인이자 독립변수이며, 개인들은 사회에 의해 움직이는 수인(囚人) 혹은 인형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인간을 보게 되면, ‘구조결정론적 인간관’을 갖게 된다. 타율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타율적 존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존재나 다름없다. 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따라서 사회실재론은 사회는 바뀌지 않으니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허무주의적으로 보수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기도 한다.

반면 **사회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들이라고 본다. 사회는 개개 구성원들의 합에 불과하다. 사회명목론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사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환원론’에 빠질 수도 있다. 사회명목론의 논리대로라면, 개개인이 착해지거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집단의 문제도 해결된다. 사회가 잘못된 것은 개인의 잘못 탓으로 돌려진다.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논리를 떠올려 보자. 사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집단에서 벌어지는 병폐들은 사회명목론을 의심스럽게 한다.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의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입장은 개인과 사회가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상호작용론**이다. 사회는 인간을 떠나서는 그것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고 인간 또한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개인 속에 사회가 들어가 있으며, 사회 속에서 인간이 비로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마음속에 양심(良心)의 형태로 내면화된다. 이를 우리는 ‘사회화’라고 부른다. 프로이트(S. Freud)는 내면화된 사회를 초자아(super-ego)라고 일컬었고, 미드(G.H. Mead)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사회를 접하고 자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쿨리(C.H. Cooley)의 ‘거울 보는 자아(the looking glass self)’는 남의 입장이나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아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역할(role)과 지위(position)를 가진다. 인간과 사회는 역할과 지위를 매개로 서로 만난다.

5. 사회는 인간에 의해서 변동하는 동시에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관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론적 관점은 무엇인가?

- ① 사회실재론 ② 사회명목론
③ 상호작용론 ④ 사회변동론

정답 : 3

<심화보충 학습>

-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미국의 신학자요 정치학자요 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는 1932년에 출간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이 되면 전혀 다른 특성, 즉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와 생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된다는 주장이다. 니버의 이러한 생각은,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실재론의 좋은 증거가 된다.

- 유리천장Glass Ceiling

<다양성의 실현>의 저자인 마릴린 로덴이 만든 신조어로, 위를 보면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투명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막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겉보기에 남녀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인사에서 남녀차별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직종(이른바 노른자위 직위)에는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회식문화가 여성들을 회사의 핵심적 인간관계로부터 차단하고, 공식적으로는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승진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실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1991년 미국 정부에서는 여성과 소수민족의 승진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유리천장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를 창설하였다. 유리천장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기사) 기업 여성고용 부쩍 늘었지만 '유리천장'은 여전

《한국경제신문》 2011.4.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43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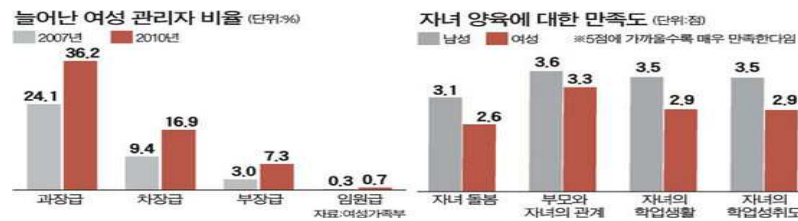
과장·차장급 비중은 증가

부장급 7% · 임원은 1%도 안돼

자녀 양육은 70%가 조부모

기업들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육성 정책에 따라 직장 내 여성 관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26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관리자패널' 조사결과 과장급 여성 관리자들은 36.2%로 2007년에 비해 12.1%포인트 증가했다고 4일 발표했다. 차장급 여성 관리자도 16.9%로 2007년(9.4%)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직장 내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여성들이 느끼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 승진 한계)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여성 인프라 개선

여성가족부가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실시한 '여성관리자패널' 조사에 따르면 생리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 기업 269개 중 97.3%인 262곳이 도입했다. 기업들이 여성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 앞장섰다는 얘기다. 여성 인력 비중이 증가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월평균 급여도 354만원으로, 2007년(208만원)에 비해 70% 넘게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조사대상 269개 기업 중 부장급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중은 7.3%에 불과했다. 임원급은 0.7%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급별 승진자 중 여성 비율도 17.1%로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었다. 여성들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승진 한계에 부딪치는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응답자 중 79.6%는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로 직장 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엔 53.1%만이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리휴가를 도입한 기업은 2007년 69.2%에서 지난해 75.2%로 늘었지만 활용 비율은 2007년 63.3%에서 지난해 49.3%로 오히려 낮아졌다.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역시 승진 누락 등 업무 평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2.8%에 달했다.

◆육아문제는 여전한 고민거리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중 75.2%는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들의 만족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들은 직장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자녀 양육 문제를 꼽았다. 특히 직장 일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는 고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았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남성들은 3.1점인 반면 여성은 2.6점에 그쳤다.

한편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까지 전 연령대 구간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70.0%에 달했다. 특히 만 3세 미만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8%에 불과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장 사회학과 열린 사회 : 사회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1) 사회학의 정의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닫힌 체제에서는 사회학이 자라기 어렵다.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사회학을 독특한 의식형태, 독특한 해석방법으로 보았다. 사회학은 독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은 무엇보다 **공식적 상황판단을 거부**하는 편이다.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수용하는 생각이나, 정부 같은 공공기관의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학은 사물의 겉모습 이면의 본질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미국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가 사회학적 의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닫힌 체제의 지배층은 사회학적 해석을 불온하거나 전복적인 행위로까지 매도하기도 한다.

피터 버거는 사회학적 사고가 니체가 말했던 **불신의 기예**라고 보았다. 회의와 불신은 지배층의 공식적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폭로하는 지적 행위이다.

로버트 머튼(R. Merton)은 현실의 뒷면과 본질을 파헤치려는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외피적 기능**(=표명적 기능=명시적 기능=공식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잠재적 기능)으로 나누어 탐구했다. 어떤 특정 제도가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잠재적 기능은 불일치할 수 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학습 기회를 열어주는 외피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잠재적 기능은 기존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학적 문제의식은 실천적 동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 그 위선을 피터 버거가 말한 폭로하려는 동기로 발전하거나,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논술한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해주기도 한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신성시되는 담론을 상대화하는 상대화의 욕구를 야기한다. 상대화는 사회를 지배하는 거짓된 마술로부터의 깨어남, 곧 각성(覺醒)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학의 역사와 연구대상

사회학은 프랑스혁명 이후 사회의 불안정을 극복하되 혁명이 이룩한 진보의 성과를 보존하려 한 **콩트**가 창시했다. 그런데 신생학문이었던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며 고유 연구대상이 무엇인지 애매하였다. 사회학은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어 연자부(하이픈, hyphen) 학문이라고 불리웠다. 기존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에 연자부만 달면 사회학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 종교-사회학, 문화-사회학, 가족-사회학, 스포츠-사회학 등등. 게다가 사회학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학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독특한 연구대상 없이 다른 사회과학이 연구하다가 남긴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집멜**은 ‘형식사회학’을 주창, 사회학은 인간 상호작용의 내용이 아닌 형식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사회학자 **소로킨**은 사회학을 ‘N+1의 학문’이라고 명명했는데, 사회현상을 다루기 위한 학문 간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그 기초원리를 설명하는 여섯 번째 학문이 사회학이라는 것이다. 사회학은 기초학문이자 종합학문이라는 것이다.

(3) 사회학과 다른 사회과학과의 관계

정치학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연구, 곧 정치이론, 정부기구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왔다. 정치학에서 인간의 정치행위 연구는 소홀히 되어왔는데, 사회학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를 국민들이 수용하여 내면화하는 **정치사회화** 문제를 먼저 연구했다. 예를 들어 독재자 히틀러의 등장을 환영했던 독일인들의 정치사회화 문제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에 대해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저서를 냈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

정답 : 3

5. 다음 중 경제학이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특정한 가정은?

- ① 문학적 인간 ② 비합리적 인간
- ③ 사회적 인간 ④ 합리적 인간

정답 : 4

<보충심화 학습> 사회과학의 지적 분업에 관하여(탈코트 파슨스)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분야도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발전에는 소위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과학의 지적 분업을 간략히 고찰해 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학의 주 관심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인접 종합과학과는 달리 사회학은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체계의 분석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는 비교적 자생자족적인 사회체계이며, 정치조직, 경제적 자원, 주민의 충원과 사회화, 독립적 실체로서의 문화의 정당화 등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체계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은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주로 관여하며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의 퍼스널리티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계의 체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인류학의 입장을 특정화하는 것은 보다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는 인류학은 사회학보다 더 광범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주로 미개문화와 미개사회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석적인 초점을 규정하려 한다면, 인류학은 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 그리고 사회체계와 퍼스널리티를 특징짓는 유형화된 상징적 의미체계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에서 인류학은 한편으로는 고등문명의 문화내용 등을 다루는 인문과학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언어학과 특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사회인류학은 사회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중간적인 학문분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사회구조와 사회과정을, 특히 전통적으로 ‘단순’사회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분야이다.

위와 같은 논의에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회학이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총합으로서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에 의해서 가정된 상호작용의 과정과 구조로부터 추상된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한 하위체계로서 분석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의 사회체계(사회를 포함해서)를 취급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체계는 한편으로 개인들의 퍼스널리티와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퍼스널리티도 또한 상호작용의 준거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분석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체계는 상징적 의미체계에 초점을 두는 문화체계의 유형적인 준거와도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많은 견해와는 달리 필자는 사회학을, 분석적으로 추상화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 사회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경제학과 정치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혹은 사회학의 부차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학을 주로 사회체계의 기능적 측면에, 즉 특히 사회체계의 ‘통합적’ 기능에 관련된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합적 기능은 물론 종합적 기능은 물론 종합에 실패하는 경우와, 종합을 촉진하는 요인뿐 아니라 종합을 저해하는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종합이라고 함은,

사회체계의 구성부분들 -역할을 가진 개인, 집합체, 규범적 유형- 간의 관계가 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조화적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그 기능의 촉진에 실패하게 되는 방식으로 질서를 세워주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소극적인 측면은 체계의 종합을 파괴하는 행동을, 재제 또는 상호 간의 파괴적 대결을 통해서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종합적 측면에서의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에 참가하는 단위들의 의도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통의 마비는 그 좋은 예이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와 같은 교통의 마비를 일으키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도로를 사용하려고 적절한 교통관리가 없었던 결과로 그러한 교통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적극적 종합이란 전체체계의 '기능'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체계의 단위들 간에 상호지원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집단과정의 수행을 위한 협동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이 종합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서, 경제학은 역시 분석적인 의미에서 주로 적응적(adaptive) 기능을 갖는 사회체계의 구조와 과정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과정은 일반적인 자원을 생산하고 동원하며 사회와 국제사회의 여러 단위와 하위체계들에게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히 시장과 화폐 및 그러한 시장과 화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위양식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학은 특히 집합적 목표의 달성에 연관되는 사회체계의 조직에 관한 학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회의 수준에서는, 그리고 지역적 하위체계의 수준에서는 정부현상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본적인 이론이 어떠한 목표지향적 집합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집합체가 대규모적이고 복합적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기업체나 대학교, 교회 등은 특히 중요한 정치적인 국면을 가지는 것이다. 집합적 기능에 공헌할 의무를 동원하는, (또는 파괴적, 저해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력은 경제체계에 있어서의 화폐에 비등한 위치를 정치체계에서 차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맥(聯脈)에서 볼 때 사회학적 분석의 실질적 대상은 주로 사회적 행위의 '제도적(institutional)' 측면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의 또는 여러 가지 의미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해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그리고 문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회체계 내의 '규범적 기대'가 형성되는 분야인 것이다. 그와 같은 기대는 행위자들의 '동기'와 종합된다. 즉 특정한 종류의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되거나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원하게' 되는 적절한 위치와 상황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의 준거체계가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사회체계가기 때문에, 그것은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보다는 주로 '집합체'들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기를 문제로 할 때에도 그 주된 관심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비율이나 결과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다.

-탈콧 파슨스, 임희섭 역, <지식과 사회: 미국의 사회학>, 탐구당, 1972, 441~444쪽-

<보충심화 학습>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경제학', '진화경제학'의 부상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최대화하는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발달했다. 하지만 최근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이 일각에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해 애초부터 강조한 것은 사회학이었다. 사회학은 성립 당시부터

경제학적 인간상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기사) 금융위기 이후 '진화·행동경제학' 뜨고 '시카고학파' 지고
학문 주체성 심각한 위기... "근본부터 다시 시작" 목소리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규정' 시카고 학파 지배력 상실
심리·생물학등 접목한 신경경제학 이론 대안으로 떠올라

《서울경제신문》 2010.2.8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474057.html>

경제학은 2008년 미국을 진원지로 하여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주체성 위기에 빠진 것이 확실해졌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 대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계경제의 총체적인 붕괴 앞에서 경제학은 학문의 뿌리부터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제40회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그랬지만, 새해 첫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의 연례총회에 모인 학자들도 '경제학을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입을 모았다.

◇수세에 몰린 시카고 학파=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 최신호에 따르면 그간 세계 경제학계를 지배해 온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은 더 이상 옛날의 권위를 잃었다. 경제 주체인 인간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찾으려는'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모든 이론 모델을 세워 왔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아님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과 전망은 수많은 이론과 정교한 틀에도 불구하고 늘 틀린다는 것은 주식 초보자들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다. "주가의 과도한 변동은 곧 평균선으로 수렴한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언해도 하락 국면에선 무조건 던져 버리고 급등 때는 별떼처럼 달려드는 게 바로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이다. 또한 불과 몇 푼 썬 기름을 찾기 위해 먼 주유소까지 찾아 헤매며 비싼 기름값과 노고를 더 들이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게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연초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총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경제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가 오류였다. 경제 주체들의 현실적인 행동에 근거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일 수도 있다"며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갈증과 필요성을 주류 경제학자들이 선언한 셈이다.

◇관심고는 행동·진화 경제학=지난달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경제학에 심리학과 생물학을 접목시킨 진화경제학,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이

각광을 받았다. 모름지기 '합리적인 경제 동물'을 가정한 시카고 학파의 시대가 저물고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동물적 특성과 행동 속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각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앤드루 로가 2004년 발표한 '적응적 시장 가설 (adaptive-market hypothesis)'은 경제학에 생물학의 이론을 접목해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진화경제학을 탄생시켰다. 이 가설은 금융시장을 다른 '종(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이 '천연자원(이윤)'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생태계로 인식하는 방법론이다.

이 종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에게 적응해 가지만 갑작스런 돌연변이(위기)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생태계의 구성을 뒤흔들어 놓는다.

이 이론은 진화의 과정에 돌연변이나 적자생존, 자연선택이 필수적이듯 시장을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나 자연상태에 노출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천착하고자 한다.

고전경제학이 말하는 '효율'이나 '균형'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한 다수의 균형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구성원을 따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종별로 다른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가 물리적으로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물학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는 진화경제학은 당연히 세포 생물학이 새로운 통합 경제이론의 열쇠를 쥐게 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외환시장 동향을 설명하는 데 응용되기도 했던 이 이론은 애덤 스미스에 다원을 접목한다는 발상으로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현실 정책에 적용되는 신경경제학=행동 경제학도 최근 경제학의 주류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영역중 하나이다.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이 영역은 조금 더 썩 주유소를 찾기 위해 교외까지 운전해 나가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 식인 인간의 비이성적 선택의 원인을 파고 든다.

과학자들이 피험자의 두뇌활동 패턴을 도표로 나타내서 경제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과학적인 기초를 이룬다. 금융위기로 인해 탐욕이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프리카노믹스', '넛지', '상식 밖의 경제학' 등의 서적을 통해 행동경제학의 저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경경제학은 이미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최근 미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대안적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시장의 비효율성을 주장해 온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행동 경제학의 대부로 주택시장 붕괴를 예견했던 로버트 실러 등이 대표적이다.

1986년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으로 노벨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현재 세계 각국을 돌면서 금융 시스템의 구조조정 방법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가 크게 관여한 영국의 런던 시티는 한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무규제의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잉글랜드 은행의 머빈 킹 총재는 '대마불사'로 불렸던 은행들을 분할하고자 하며 구제금융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어데어 터너 금융감독청장 또한 영국의 금융산업이 너무 비대하다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고자 한다. 그는 금융계 출신으로 런던정경대에 '자본시장 역기능 연구소'를 차리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규제 책임자로 새로 임명한 캐스 선스타인도 대표적인 행동 경제학자다. 오바마 정부는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책 같은 정책의 골격을 잡았으며 또 추상적인 모델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의 금융규제 정책에 행동 경제학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3장 사회학의 연구방법

(1) 과학적 관찰과 인과관계

과학적 관찰은 먼저 관찰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고,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관찰을 위한 정확한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 관찰을 위해서는 주로 자연과학적 실험 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찾는다. 동질상태의 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원인 X변수를 실험집단에 적용하여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실험집단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제집단과 비교한다. 만약 차이가 나타나면 그 차이(Y)는 X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추론한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인과관계를 세우기가 어렵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적이라고 쉽게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편부모가정이 폭행의 한 원인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편부모가정이 폭행의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폭행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필요조건에 근접하는 관계는 때때로 찾을 수 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양친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양친 부모의 슬하에서 충분히 사랑받은 청소년들보다 남을 폭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통계학을 활용할 수 있다. 통계학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보다는 인과관계의 정도와 수준을 밝혀준다. 인과관계의 정도를 밝혀주는 통계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변수 한 가지를 더 도입할 수 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종교 신앙이 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폭행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종교변수)를 도입함으로써 편부모가정과 폭행 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종교변수 외에도 부모님이 알콜중독인 경우, 소득수준 차이 등을 변수로 추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설명

이론적 설명은 상식적인 설명과는 달리 명제들로 이루어진다. **명제(proposition)**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 관계의 진위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명제가 나타내는 관계의 진실성이 크면 클수록 그 명제는 상위 명제가 된다. 반대로 그 진실성이 줄어들면 하위 명제가 된다. 진실성이 확실하고 자명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명제는 최상위 명제인 **공리(axiom)**라고 한다. 하위 명제는 상위 명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대체로 3단논법은 우리에게 논리적 도출의 보기를 잘 보여준다.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김씨는 사람이다.

3) 고로 김씨는 죽는다

여기에서 김씨의 죽음은 1)과 2)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이 같은 논리적 도출을 논리 연역적 체계라고 하며, 이것이 이론적 설명이다.

예를 들어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통합의 정도로 설명했다. 영국의 자살률이 스페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설명한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인간 집단에서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 가능성이 낮아진다.”와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다.”는 두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두 명제가 옳다면 “개신교도는 천주교도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명제도 진실이 된다. 따라서 “영국은 스페인보다 개신교 인구가 더 많다.” “고로, 영국에서는 스페인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영국인들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회적 사실이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학의 최상위 명제는 무엇일까? 호만스는 사회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개인 행위에 관한 명제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어떤 행위를 보상할수록 그 행위는 반복된다”(성공명제)가 그가 제시한 명제중 하나이다. 심리학적 명제로 환원한 것이다.

이렇듯 명제의 형식을 갖춘 가설들을 논리연역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론적 설명이다. 즉 공리에서 정리가 논리적으로 도출되고, 경험적 가설이 정리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며, 그 경험적 가설이 실제 조사를 통해 증명되면 이론적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공리→정리→경험적 가설→증명→이론적 설명**).

(3) 체험적 이해

돌을 관찰하는 것과 인간을 안다는 것은 과연 차이가 없는 것일까? 동물을 설명하는 틀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파블로프의 개는 조건반사에 의해 종소리만 나도 침을 흘린다(자극-반응 모델). 하지만 인간은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행동(behavior)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a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행위(action)**한다. **인간 행위는 그 속에 뜻(의미)을 담고 있다.** 인간의 행위는 상징적 동작이다. 인간관계는 자극-반응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상징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상징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은 배가 너무나 고파도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면서 밥그릇에 달려든다.

막스 베버는 이 같은 **‘사회적 행위’**를 사회학의 연구 주제로 보았다. 행위란 행위 주체가 그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통해 남의 행위를 참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피연구자의 자리에 서서 피연구자의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추체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추구하는 베버의 사회학을 **이해의 사회학**이라고 부른다.

1. 다음 중 연구자가 피연구자의 자리에 서서 피연구자의 체험을 경험하려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의미 ② 설명
③ 추체형 ④ 인식론적 특권

정답 : 3

2. 다음 중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설명 ② 명제
③ 증명 ④ 논리연역체계

정답 : 2

3. 호만스가 제시한 기본명제 중 어떤 행위를 보상할수록 그 행위가 반복된다는 명제는?

- ① 성공명제 ② 자극명제
③ 가치명제 ④ 박탈 및 만족의 명제

정답 : 1

4. “공리에서 정리가 논리적으로 도출되고, 경험적 가설이 정리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며, 그 경험적 가설이 실제 조사를 통해 증명되면, ()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illegible]

정답 : 1

4장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1)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 1798~1857)

콩트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보수주의에 반대하고, 질서와 진보를 **실증주의**를 통해 결합하고자 했다. 그는 사회학을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으로 나누고 사회정학은 **질서**를, 사회동학은 **진보**를 다루었다. 전통주의의 회귀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는 질서를 강조하고, 현재 사회를 비판하는 개혁주의자들을 진보를 강조하는데서 보듯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속성을 가진 질서와 진보를 결합할 수 있는 법칙을 콩트는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콩트는 사회를 ‘생물유기체’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인체의 각 부분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몸 전체가 건강하듯이, 사회도 사회 각 부분이 기능을 다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 각 기능적 부분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접근을 사회유기체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질서가 강조된다.

사회정학은 사회가 유지되고 기능하는 질서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질서는 언제나 진보를 위한 조건이지 질서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사회동학은 사회진보의 원리를 찾아 내려는 것이다. 인체에서도 호르몬 분비와 같은 생리현상은 변해도 각 기관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사회에도 변하지 않는 측면은 ‘사회정학’에서, 변하는 부분은 ‘사회동학’에서 다룬다.

사회동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정신의 진보를 다룬다. 콩트는 사회 진보가 인간 정신의 진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가졌다. 콩트는 인류 지적 진화의 3단계설을 제시했는데,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가 그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증적 단계에서 콩트는 사회학이 실증과학의 최고봉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사회는 자연현상보다 훨씬 복잡하며, 인류의 발전법칙을 찾는 것이 어려움을 콩트는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학보다 단순한 다른 학문들이 먼저 실증적 단계에 도달해야 사회학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학은 실증적 방법의 완성이며, 사회학 바로 앞에는 생물학이 서있다.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의 순서로 실증과학의 위계서열을 설정했다.

(2)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 1820~1903)

산업혁명으로 변명을 구가하던 영국의 스펜서는 발달된 영국에 비추어 다른 사회의 미래로 조망할 수 있는 원리를 **진화론**에서 찾았다. 생명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미분화된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도 **단순사회**에서 **복합사회**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사회 내부 규제의 엄격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형태를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로 분류하기도 했다. 군사형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지배하고 개인의 의지가 무시된다. 반면 산업형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행동하고 협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들은 스스로 자제한다. 그런데 산업화된 영국 사회가 전보다 더 빈번한 갈등을 경험하고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을 보고 스펜서는 현대 복합사회가 군사형 사회일수도 있다고 나중에 견해를 수정했다.

스펜서는 진화론자로서 사회유기체 접근을 수용하였으나, 사회유기체 접근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스펜서는 생물학적 유추를 사용하되, **적자생존과 자연도태** 현상에 주목했다. 따라서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막기 위해 빈민을 구제하거나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사회의 진화발전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의 모든 일에 정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3)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

뒤르켐은 사회학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적 사실이란 개인에게 외재하며 그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감정양식, 사고양식,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와 문법, 화폐단위, 도덕적 종교적 관습적 법적 규범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사회현상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적 해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 사실을 하나의 물건(thing) 같이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를 **사회학주의**라고 부른다.

사회적 사실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성원들의 의식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집합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의식은 개인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속성을 가진다. 즉 집합의식은 개인들 개별의식의 단순한 합은 아닌 것이다. 뒤르켐은 <사회분업론>에서는 분업이라는 사회적 사실에 따라 구성원들의 연대방식이 동질성을 근거로 하는 **기계적 연대**에서 차이를 근거로 하는 **유기적 연대**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유기적 연대 속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상호 협력한다. <자살론>에서는 사회통합의 정도, 사회적 결속력의 정도에 따라 자살률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통합과 규제력이 약화된 집단에서는 **이기적 자살**이 많고, 반대로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고 사회 결속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이타적 자살**이 높다.

<보충심화 학습>

에밀 뒤르켐의 생애와 사상

1. 생애

에밀 뒤르켐(E. Durkheim)은 1858년 프랑스 로렌지방의 에피날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대교 랍비였는데, 이로 인해 근검·절약·절제하는 생활 습관을 물려받게 되었다. 하지만 뒤르켐은 유대교 신자로서 남지 못하고 불가지론자(不可知論者)가 되었다. 그는 3수 끝에 프랑스 명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뒤르켐이 대학을 다니던 시기의 프랑스는 1871년 파리고원 이후 진보적인 공화파가 장악한 상태로서, 왕당파나 카톨릭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뒤르켐은 대학시절 공화주의와 진보적 사회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화파의 세력 확대 분위기에 호응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뒤르켐은 특히 유대인을 평등하게 사회 내부로 ‘동화(同化)’시키고자 하는 공화주의에 호감을 느꼈던 듯하다. 반면 왕당파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불안감을 느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상인이거나 변호사 등 전문직 이상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했다. 유대인들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으며, 프랑스인들의 지속적인 차별을 견뎌야 했다. 이는 여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유대인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폭발한 것이 ‘드레퓔스 사건(1898년)’이다. 보수파들은 드레퓔스 대위를 간첩으로 고소했지만, 사실상 유대인에 대한 탄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때 뒤르켐을 비롯하여 소설가 에밀 졸라 등이 드레퓔스 구명운동에 나섰고, 이는 공화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프랑스의 정치사회 개혁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뒤르켐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잠시 공부하러 갔는데, 독일 사회철학에 드러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유는 뒤르켐의 사회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직후인 1887년 그는 보르도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업했고 결혼도 했다. 그간 공부한 성과는 <사회분업론(1893)>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새로운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 있으며, 현재의 사회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듯 무정부상태 혹은 혼란의 시대가 아니며, 도덕적 개인주의를 토대로한 새로운 유기적 연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학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해 나름의 연구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학 방법

의 규칙들(1894)>도 연이어 출판하였다. 이어 뒤르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론(1897)>을 저술하여, 학계에 크나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자살’을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지적 패러다임의 변혁을 일으킨 것이다.

뒤르켐의 영향력은 강화되어 그는 1902년 소르본느 대학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뒤르켐 생애의 마지막 역작은 <종교생활의 기본형태(1912)>인데, 이 책에서 그는 원시종교에서 토텐(totem)을 숭배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실제로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사회)라고 주장했다. 뒤르켐의 생애 말기는 불우했다. 전도유망하던 학자로 성장해가던 외아들 앙드레가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던 것이다(1916). 이 충격이 컸던지 뒤르켐은 그 이듬해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뒤르켐의 사상은 마르셀 모스, 레비-스트로스 등의 후학들에게 전파되어, 인류학,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학, 60년대 프랑스 구조주의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

뒤르켐 이전에 콩트(A. Comte)의 실증주의 사회학이 존재했지만, 콩트는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콩트의 사유는 뒤르켐에 와서 명확한 근거를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콩트는 사회학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신학적 단계-형이상학적 단계-실증적 단계로 이어지는 그의 역사발전 도식은 과학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뒤르켐은 사회학을 ‘경험적 근거’ 위에 올려놓고자 노력했다.

뒤르켐은 사회실재론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사회의 법칙이 자연과학의 법칙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사회를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사물(things)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취급하라” 이것이 뒤르켐의 명제이다. 따라서 사회는 객관적인 관찰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부에 존재하며(외부성), 개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강제성). 예를 들어 도덕적 의무감도 개인의 순수한 자발적 신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뒤르켐의 혁신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조차 이미 사회적 사실로서 외부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며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회를 인간들의 단순한 총합으로 볼 수 없게 한다.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속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생물학이나 심리학에서 주장하듯 인간 본성을 가지고 사회의 성격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타적인 사람이 많으면 전체 사회도 이타적이어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3. 자살은 개인의 ‘고독한’ 결단인가

위와 같은 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은 그의 대표작인 <자살론>에 적용된다. 자살은 개인의 심리요소로 설명될 수 없다. 당시 유럽에서는 자살률이 증가 일로에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분분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의 유전인자 문제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병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자살률이 해마다 안정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자살률은 이탈리아의 자살률에 비해 2배나 높다. 덴마크는 영국보다 4배나 높다. 당시 가톨릭 국가의 자살률이 낮고 개신교 국가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통계적 사실이었다. 문제는 왜 그런가하는 설명이다.

뒤르켐은 자살은 금지하는 사상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종파 모두 자살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뒤르켐은 개신교 신자는 신 앞에 혼자 서있는 반면, 가톨릭은 중간에 교회와 사제가 개입하여 공동체로 튼튼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로서 개신교 교리와 가톨릭 제도를 절충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여타 개신교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자살률도 큰 차이가 난다. 미혼자의 자살률은 같은 나이의 기혼자에 비해 높다. 사실 결혼은 여러 가지 책임과 부담을 가져온다. 그런데도 미혼자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공동체로서의 통합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족의 형태로 보아도, 대가족 구성원이 핵가족보다 자살률이 낮다. 자살을 보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자살의 이유를 물질적 빈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늘 가난했던 사람은 오히려 낮은 자살률을 보인다. 자살률은 경기침체기에 상승할 뿐 아니라, 경기부양기에도 상승한다. 따라서 자살의 인과적 요인은 물질적 빈부 자체가 아니라, 경기상황 변동이 가져오는 ‘불안정성’인 것이다. 농업보다는 상업이나 공업 종사자들이 자살률이 더 높다. 그리고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보통 공리주의자들은 물질적 보상이 만족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그러한 주장을 무너뜨린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살률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신념에 의해 개인이 집단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느냐이다. 이에 뒤르켐은 “자살은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집단의 (도덕적) 통합 강도에 반비례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뒤르켐은 개인이 도덕적 규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불렀다. 아노미 상태가 자살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3. 뒤르켐의 현대사회 진단 :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뒤르켐에게 도덕적 규범의 문제는 그가 말한 사회적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회학을 종종 도덕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도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 도덕을 부활시키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뒤르켐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현대사회는 이미 변동했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뒤르켐은 보수주의자들과는 갈라선다. 당시 보수파와 가톨릭교회는 산업화로 인한 도덕적 질서 쇠퇴와 개인주의의 만연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가졌다. 특히 그 원인을 자유로운 사고를 전파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공화파에게 돌렸다. 따라서 뒤르켐은 진보적 지식인이자 공화파로서 그러한 보수파들의 공세에 답변해야 했다.

뒤르켐이 제시한 답변은 현대사회는 이제 ‘기계적 연대’ 방식이 아닌 ‘유기적 연대’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명제였다. 전통사회는 기계적 연대 방식으로 구성된다. 자신이 태어나고 소속되는 집단에 자동적으로 통합되고 결속된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노동분업 발달, 인구 증가,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횟수와 밀도 증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는 유기적 연대로 결속된다. 유기적 연대는 자동적으로 인간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 간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 뒤르켐은 당시의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갈등과 사회적 혼란, 그로 인한 아노미 상태 증가를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병리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덕적 통합이 필수적인데, 보수파처럼 개인주의를 무조건 비난하기 보다는, 교육과 직업집단을 통하여 도덕적 개인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신과 집단이 개인의 위에 있었다면, 유기적 연대의 시대에는 개인이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숭배되어야 할 대상이

다. 따라서 개인들이 서로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도덕적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뒤르켐의 도덕적 개인주의 프로젝트였다. 그는 국가의 목적도 개인의 도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제도화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뒤르켐의 도덕적 개인주의 발전을 위해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연대주의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대통령인 레옹 부르주아였는데, 그는 개인에게는 모두 사회적 빚(social debts)이 있다고 보았다. 돈을 번 것도 사회적 자산을 누린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바른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계약조건을 누려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위해 상속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르켐도 연대를 위해서는 역시 상속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다.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적 연대를 맺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연대의 이념에 따라 개인들 간의 제반 계약조건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사회에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뒤르켐의 사상은 나중에 복지국가 이념에 기여하게 된다.

4. 도덕적 통합의 메커니즘 탐구 : 원시종교 연구로부터

뒤르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현대 사회의 문제는 도덕적 규범이 부재, 즉 아노미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덕적 규범을 구성할 것인가가 당장 시급해진다.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뒤르켐은 생애 말년, 원시종교 연구에 착수했다. 단순한 사회인 원시사회를 연구한다면, 지금의 인간들이 어떻게 도덕적 관념과 관계를 맺는지도 알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뒤르켐은 종교가 사회를 구성하는 초석(礎石)이라고 보았다. 종교는 한 사회에 속하는 모든 이들의 응집력의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원시사회에 보이는 동식물 같은 ‘집합 표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에서 다람쥐를 숭배한다고 하면, 실상은 다람쥐를 숭배한다고 보다는 그 다람쥐라는 집합 표상을 통해서 그들 집단의 결속을 다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자신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숭배하는 셈이다. 이러한 흔적은 현대사회에서도 국기, 국가, 국민의례 등으로 남아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가간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각 나라 국민들은 각자의 결속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사회 종교의 메커니즘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뒤르켐은 특히 프랑스혁명기의 혁명적 축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고 이성, 자유, 형제애 등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일은 현대적인 토tem과 신앙으로서 프랑스 사회의 도덕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5. 결 론

뒤르켐의 사회실재론은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보고 자연과학의 객관적 방법을 적용한다. 그에 따라 자살 같은 개인적 현상도 사회적 사실인 ‘도덕적 규제’ 유무에 따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에 걸맞는 도덕적 규범 수립을 위해 개인숭배의 새로운 사회를 국가·직업집단·교육 등을 통해 제도화시키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종교의 토tem과 같은 작동 원리가 현대사회에도 새로운 도덕적 규범 설정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종교의 토tem이 실제로 숭배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집단이자 구성원 개개인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을 토tem으로 설정하여, 도덕적 개인주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실이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국가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복지국가가 점차 약화되고 시장의 힘에 사회의 대부분의 개인이 단독자로 맞서야 하는 세계화 시대에 뒤르켐의 사상은 어떤 도움이 될까? 시장 앞에서의 계약

은 순수한 개인들끼리의 연결을 전제하지만, 시장 속의 개인들의 선택에는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뒤르켐이 보는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철저하게 도덕적 질서라는 사회적 사실의 힘 앞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와 동떨어져서 순수하게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강제한다. 시장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인데, 이는 사회의 규범적 통합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국가가 시장의 힘 앞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개입을 최소화한다면, 뒤르켐이 우려했던 국가의 도덕적 통합력도 약화되고 말 것이다. 늘어가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 등은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직업집단도 도덕적 통합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뒤르켐의 사상은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 사회의 도덕적 통합능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국가가 시장에 복속된다면, 사회 전반이 경제적 논리 위주로만 작동된다면, 계속해서 개인들은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든 직업집단이든 교육이든, 도덕적 통합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그 기초는 현대사회가 이룩한 개인의 존엄에 대한 숭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에밀 뒤르켐, 임희섭 역, <사회분업론, 자살론>, 삼성출판사
 _____, 윤병철 역,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새물결
 _____, 노치준 역, <종교 생활의 기초 형태>, 민영사
 김종엽, <에밀 뒤르켐을 위하여 : 여성·축제·인종·방법>, 새물결
 _____, <연대와 열광>, 창작과 비평사
 민문홍, <에밀 뒤르켐의 사회학>, 아카넷
 앤터니 기든스, 이종인 역, <뒤르켐>, 시공사
 루이스 코저, 신용하 역, <사회사상사>, 시그마프레스

(4) 칼 마르크스(Karl Marx : 1818~1883)

마르크스의 사상은 독일 고전철학의 헤겔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 영국 고전 정치경제학의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프랑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의 생시몽 등의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부분들을 상호관련된 전체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모든 사상이나 교리, 진리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므로 역사적 접근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변동성이다. 사회변동은 내적 모순과 갈등을 통해 일어나므로 변동 사례들을 연구하여 변동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 같은 방법론에 따라서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따라 변동·발전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생산관계가 발전하는 생산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모순이 발생하여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양식(생산력+생산관계)이 고대적 생산양식, 봉건적 생산양식, 자본제적 생산양식,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체**로 보았다. 상부구조는 법, 도덕, 가치, 이념, 정치, 종교, 문화, 규범 등을 말하며, 하부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복합체인 생산양식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생산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자(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노동력만을 가진 무산자(프롤레타리아) 간의 모순과 갈등이 항상 잠재하며,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 발생에 의해 사유재산제가 철폐되고 생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무계급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보충심화 학습>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생애와 사상

1. 생애

칼 마르크스(1818~1883)는 1818년마 독일 라인주 트리어시의 풍족한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개신교로 개종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적인 주부였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볼테르나 레싱 등의 저작을 읽고 계몽주의 사상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세속적이었지만 합리주의를 신봉했다. 트리어시는 한때 나폴레옹의 지배로 인해 프랑스혁명의 진보적 영향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프로이센 군주의 지배에 반감을 가진 지방이었다.

마르크스는 1835년 본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였는데, 본 대학 시기에 독일에 만연하던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에 젖었다. 특히 마르크스의 장인이 될 시의원 베스트팔렌 남작의 영향이 강했다. 아마도 마르크스의 열정적인 문장력은 이 시기 낭만주의 문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더욱 성공하도록 이듬해 1836년에 베를린 대학 법학과로 진학시킨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4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베를린 청년들을 사로잡은 헤겔주의 사상에 빠져들었다. 마르크스의 스승이었던 브루노 바우어의 교수해임으로 교수가 될 길이 막힌 마르크스는, 저널리즘 쪽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라인신문>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포도재배업자의 비참한 삶에 대한 비판적인 원고를 실는 바람에 <라인신문>은 폐간되고 말았다. 이 때 마르크스는 베스트팔렌 남작의 딸인 예니와 결혼식을 올렸다.

독일의 답답한 상황에 실망한 마르크스는 사상의 자유가 꽤 보장되는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였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독불연보>에 “유대인문제”, “헤겔 법철학비판 서문” 등을 기고하는 등 활발한 저작활동을 벌였다. 이 때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고전경제학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철학에 경도되었던 마르크스는 점점 현실의 역사와 정치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파리 시기의 결실이 미완성작인 <경제학·철학 수고>이다. 무엇보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그의 평생후원자인 엥겔스(F. Engels)를 만나게 되었다. 엥겔스는 부유한 공장주로서 마르크스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뒷받침함으로써 마르크스 사상이 세상의 빛을 보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1845년 엥겔스와 공저로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명저가 탄생하게 되었다. <독일 이데올로기>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1848년 혁명이 발발하자, 파리의 혁명을 돕기 위해 <공산주의자 선언>을 작성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자 선언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갈등으로 역사를 조망하는 관점이 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혁명의 기운을 틈타 <신라인

신문>을 창간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조명하는 시의적절한 글을 생산해냈다. 처음에 마르크스는 노동자와 진보적인 부르주아가 협력할 것을 당부하다가, 나중에 가면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행동을 옹호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혁명이 실패하자 결국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영국에서 마르크스는 더 이상의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고 1848년 프랑스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는 <1848 프랑스 계급투쟁>이라는 책을 출판한 뒤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칙을 일반화하기 위해 <자본론> 저술에 착수하였다. 마르크스는 혁명은 인위적으로 발발하기 보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위기 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마르크스는 동료들로부터 정태적이라고 비난받게 되었으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런던에서 생계난에 시달리던 마르크스는 결국 첫째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되었다. 1864년(46세)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게 되어 어느 정도 경제력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풀리자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마르크스는 세계노동자의 단결을 꾀하는 ‘제1인터내셔널’ 발기인이자 개회연설자로 참여하였다. 이후 마르크스는 8년 동안 인터내셔널 런던 지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본론>의 1권은 1867년에 발간되었다. 1870년대에 이르면 엥겔스가 자신의 공장을 통해 연금 수령권을 주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중산층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때는 딸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온천을 방문하고, 증권거래소에도 출입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되지 못하였다. 1873년 마르크스는 뇌졸중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단편적인 글만 쓰고 정치활동을 하다가, 1883년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게 되었다.

2. 마르크스의 초기 사상

마르크스는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계몽주의적 사고와 베스트팔렌 남작으로 영향으로 낭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대학에 와서야 마르크스는 헤겔(Hegel)의 변증법에 눈을 떴다. 당시 헤겔의 철학은 헤겔 좌파와 헤겔 우파 등의 조류를 낳으면서 대학생 지식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초기 사상은 ‘소외’를 중심으로 한 다소 철학적인 작업이었다. 다만 마르크스는 헤겔 철학의 관념적 측면을 물질적 조건을 강조하는 유물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포이어바흐의 영향이 컸다. 포이어바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으며, 종교는 인간 소외의 표현”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종교비판을 발전시켜, 헤겔이 절대정신의 구현자로서 국가와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집단을 보편적 계급으로 찬양했던 것을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오히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생각을 발전시켰으며, 관료집단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계급으로서 해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계급은 다른 신분들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신분”이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 즉 노동계급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응축하고 있으므로, 노동계급이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면 사회 전체의 모순도 연이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그의 초기 미완성저작인 <경제학·철학 수고>의 ‘노동소외’를 다루는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헤겔의 정신의 소외 논의를 탐구하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 소외를 발견하게 된다. 인류 역사의 원동력은 인간의 노동을 통한 생산 활동인데, 노동은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자기창조 도구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생산활동 자체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들은 나아가 노동자 및 다른 인간들로부터도 소외되며, 결국 인간이라는 본질 자체도 박탈당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소외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후 마르크스는 철학적 작업을 뛰어넘어, 역사적·경제학적 탐구를 시도했다. 그 결과가 마르크스의 후기 대표 저작인 <자본론>에 드러난다.

3. <자본론>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법칙 탐구

마르크스는 생산 활동이 인류 역사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인류는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양식의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지주와 노예가 생산관계를 맺었고,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가 생산관계를 맺었다. 농노들은 자신의 생산수단(토지)을 갖고 생산(농사)과정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토지, 자본)을 자본가(부르주아)가 소유하게 된다. 노동자는 겉으로는 일한 시간만큼 대가(임금)를 받는 것으로 자유로운 듯한 겉모습을 가진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오히려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부자유'에 주목했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약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듯하지만, 노동자들은 생존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거나 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농민들을 도시로 떠밀어 공장노동자로 만드는 과정에는 토지로부터의 강제적인 축출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마르크스는 나아가 '잉여가치'에 대하여 논증함으로써,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상당부분(잉여)을 착취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가 착취로 간주하는 것을,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이윤'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이러한 잉여가치를 지배계급이 그냥 가져갔다. 즉 드러내놓고 생산자들이 창출한 가치를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한 교환관계(즉 계약관계)라는 겉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가져간다는 점이 감추어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거래도 자유로운 시장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간이 지나면 '이윤율 저하의 원칙'에 따라 위기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계에 투자하는 자본의 양은 자본가들 간의 경쟁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한 경쟁의 심화는 비용경쟁을 불러오고,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여나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진 돈이 줄어든다면 전반적인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물(상품)의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었다.) 물론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의 역동적 역사가 잘 보여주듯,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이윤율 저하의 속도는 저지될는지 모른다. 게다가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듯 해외 식민지를 확장한다면 원료조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저렴한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을 강조했다. 근무일이 줄어들거나 절대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노동귀족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설사 물질적으로 비참해지지 않더라도, 과소소비의 상태가 오면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모든 위기의 최후의 진짜 원인은 언제나, 자본주의 생산이 전체 사회의 절대 소비력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일반 대중은 궁핍하고 한정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자본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는 1929년 대공황 때 지나친 경쟁적 생산으

로 말미암은 재고 누적으로 상품이 남아돌았지만 대중들의 구매력은 그에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을 경험했다. 이 시기 대공황은 케인즈의 처방에 따라,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유효수요’ 창출로 극복된 바 있다. 케인즈가 마르크스를 읽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대공황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메커니즘에 그대로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4. 마르크스와 이데올로기 :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지배양식

마르크스가 단순히 경제학적 작업만 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데 있어, 문화적·관념적 측면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 그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하는 관념체계, 곧 일종의 ‘허위의식’이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조건(경제)이 상부구조(법, 철학, 종교)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예술이나 과학은 이러한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예외일 수 있다고는 생각했다.) 특히 마르크스는 당시의 자유주의 경제학(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맬서스로 이어지는)이 자본주의의 표면만 보고 심층적 원리는 은폐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논의에서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많은 영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상품물신주의’ 논의이다. 마르크스는 교환논리의 지배가 응축된 것이 시장에 나온 ‘상품’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가격이 매겨진 상품의 교환 속에 매몰되어, 상품교환의 뒤에 감추어진 생산자들 간의 관계, 즉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망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도 모두 교환 논리에 의해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는 상품물신주의에 따라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교환 논리에 따라 지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환논리는 형식적으로는 평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실의 사회관계는 평등한 교환인 것처럼 ‘신비화’ 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5. 결 론

마르크스는 여전히 사회학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위험한 사상가이다. 마르크스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비판한 사회학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생각했지만, 마르크스는 마치 종교창시자처럼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쳐, 20세기에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사회주의 국가는 몰락하여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존재했던 시기의 자본주의 사회는 분배를 어느 정도 강조하는 복지국가나 미국식 뉴딜 정책 등을 실시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지금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풀고 최대한 시장원리에 경제작동을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진행되어 왔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새로운 판도를 열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시장의 실패나 시장행위자(대출업체, 투자회사)의 도덕적 해이, 일부 초국적 기업의 독점 등을 국가가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사회주의의 비판과 저항이 약화된 최근 30년간의 자본주의 사회는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로 권위 있는 경제학자와 투자가들이 진단하는 현재의 위기가 과거 1929년 이후 대

공황처럼 극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몰락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비판적 주장을 수용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다.

참고도서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I>, 비봉출판사
데이비드 맥릴런, 정영목 역, <마르크스>, 시공사
앨런 스윈지우드, 박성수 역, <사회사상사>, 문예출판사
리처드 오스본, 윤길순 역, <하룻밤의 지식여행 : 사회학>, 김영사
루이스 코저, 신용하 역, <사회사상사>, 시그마프레스

(5) 막스 베버(Max Weber : 1864~1920)

베버는 사회학은 개인의 행위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사회제도와 조직 등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베버가 말하는 이해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말한다. 사회학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를 찾아내어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 즉 행위의 동기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이해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사회변동의 원인이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교 같은 관념도 사회변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충심화 학습>

막스 베버(Max Weber)의 생애와 사상

1. 생애

막스 베버(1864~1920)는 1864년 독일 에르푸르트시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베버의 아버지는 독일 의회 의원이고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다. 베버의 유년기는 교양있는 부르주아 가문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세속적인 권위주의와 어머니의 청교도적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시절이었으며, 이는 그의 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베버는 5살 때 수도 베를린으로 이사해서, 하이델베르크 법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 청년들에게는 칼을 들고 결투하는 결투 클럽이 귀족적이고 남성다운 명예의 상징으로 유행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시절 베버는 강한 모습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베버의 얼굴에 난 흉터는 이 때 생긴 상처로 인한 것이며, 이 시절 베버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군복무를 위해 신세를 지게 되었던 이모부와 이모는 베버의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모부는 비교적 순수한 자유주의 사상을 가져 베버에게 정치적 지성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모는 적극적인 칼빈주의적 경건성으로 베버가 종교서적을 탐독하도록 자극했다. 이모부를 통해 베버는 어머니의 청교도 신앙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베버는 아버지가 비도덕적인 쾌락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점차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를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베버는 아버지의 경제적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공부를 위해서는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 후(1884) 베버는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 시기 그의 공부는 1889년 박사논문 <중세상업사회>로 결실을 맺었다. 1891년에는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 <로마중세사> 연구가 완성되었다. 줄기차게 학문적 진전을 이루는 시기, 베버는 성직자처럼 엄격하고 금욕적인 원칙에 따라 생활했다. 1892년에는 베를린 대학 사강사로 임용되었으며, 1893년에는 사촌인 마리아느 슈니트거와 결혼했다. 1894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당시에는 사회학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버는 경제학 교수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그의 교수취임강연인 “민족국가와 경제정책”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1896년 베버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경제학 교수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베버는 많은 학자 및 정치인들과 교제하면서, 정당 모임(기독교사회당)이나 연론활동을 활발히 벌이게 되었다. 1897년 베버가 아버지에게 쏟은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버리라’며 격하게 대했던 것이다. 베버의 아버지는 처음 접하는 아들의 태도에 그만 충격을 받아, 한 달도 안 되어 죽고 말았다. 이후 베버는 죄책감으로 심각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었고 5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교수직을 그만두고 요양소와 정신치료실을 전전하며 유럽 여러 곳을 여행했다.

1904년이 되어서야 그는 <사회과학지>를 편집하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완성하는 등 지적 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특히 1904년 베버는 미국 여행에서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미국 자본주의 출현에 있어서 개신교 종파가 행한 역할, 정치기구, 관료제 등은 그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이후 그의 종교사회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06년에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1908년과 1909년에는 산업노동과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결국 1910년에 이르면 뢰니스, 짐멜 등의 사회학자들과 더불어 ‘독일사회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베버의 집은 독일 지식인들의 살아있는 토론 및 교제 장소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베버는 민족주의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자원했다. 그는 전쟁 반대론자는 아니었지만, 독일의 제국주의적 팽창 야심에는 명확히 반대하였으며, 독일 지주들이나 대기업들의 야욕을 비난하였다. 그러자 보수 세력들은 베버를 반역자나 좌파로 몰아갔다. 1918년에는 독일에서도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혁명 시도가 있었다. 베버는 처음에 이 혁명 시도에 부정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지지하게 되었다. 베버는 독일이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말년에 그는 뮌헨 대학에서 일하였으며, 독일민주당 창당에 창설멤버로 기여하면서도 사회민주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입장을 가졌다. 말년에 베버는 그의 최대 저작인 <경제와 사회>를 집필하였으나, 폐렴으로 1920년 작고하는 바람에 <경제와 사회>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베버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매이지 않으려 했으며, 어떤 이데올로기적 노선에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특히 짐멜처럼 유대인이라서 차별을 받거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등 좌익이라서 차별받는 동료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동료애를 상하면서까지 그들의 정당한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베버의 태도는 그가 소위 훌륭한 정치인으로 인정받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베버는 우파와 좌파 양쪽 친구들로부터, 심지어 중도적 자유주의자들로부터도 고립되는 경우가 흔했다. 이는 그가 주관적인 관계나 경제적·정치적 이익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2. 베버의 사회학 방법론

베버가 살던 당시 독일학계에는 문화과학 대 자연과학의 논쟁이 한창이었다. 실증주의자들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리케르트 같은 문화과학자들은 사회학 같은 문화과학은 자연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감정이입, 추체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베버는 두 가지 주장 모두를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의 대상이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것이므로 자연과학의 연구대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문화과학자들은 너무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베버가 사회학은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베버는 사회과학이 나름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버는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의 태도가 연구자에게 반드시 요구된다고 했다. 사회학자는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신념이나 가치를 유보하고 대상을 대해야 한다. 사회학과 같은 경험과학은 사실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윤리적 신념을 강변하기 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식으로 가치중립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나름의 가치와 신념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수는 강의실 밖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대로 정치적 이념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베버는 사회과학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념형(ideal type)’을 구성하자고 했다.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본주의 정신’, ‘청교도 윤리’, ‘관료제’ 등과 같이 현상을 압축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한 뒤에 그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또한 베버는 문화과학자들의 견해를 일정 부분 수렴하여, 사회학의 사회현상 분석에는 행위자가 어떤 사회적 행위에 두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밝혀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이해의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베버는 사회학을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렸다. 베버는 행위자의 행동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 속의 각 개인이 준거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연관시켰다. 즉, A라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한 인과적 원인은, B라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그가 행동했기 때문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 신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청교도들의 행위구조를 구성하는 논리를 이해하고자 함과 동시에, 감정이입을 통하여 그들의 주관적 심리상태까지 파악하고자 애썼다.

3. 사회명목론 : 개인의 주관적 의미체계가 중요

베버가 보기에 사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베버는 뒤르켐의 사회실재론과는 거리를 두었다. 전체로부터 출발하여 개별 행위를 분석하면 개념의 실체화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뒤르켐이 <자살론>에서 자살의 원인을 아노미 상태(사회적 규범의 부재)에 두었는데, 여기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너무 절대시킨 나머지 자살의 원인을 아노미라는 애매한 개념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심리로 설명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사회 속의 각 개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기대하는 어떤 의미체계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의미체계가

각 개인의 행위 동기가 된다는 것이고, 사회학은 그러한 행위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목적합리적 행위, 가치합리적 행위, 전통적 행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목적합리적 행위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행위유형을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나 투자자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가치합리적 행위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유형을 말한다. 종교인이나 도덕가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 행위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유형이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그저 사회적으로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통사회는 전통적 행위 유형이 지배적이었다. 현대 사회는 목적합리적 행위와 가치합리적 행위가 지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 베버의 현대사회 진단 : 탈주술화와 합리화(rationalization)

베버가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합리화’이다. 서양 중세의 주술적 세계관은 이성을 활용하는 근대문명의 발전에 따라 ‘탈주술화’되고 ‘합리화’된다. 하지만 역사 속 어느 순간 갑자기 이성이 승리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인간중심의 가치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줄거리지만, 인간 이성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청교도 윤리 때문이라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 즉 종교라는 껍데기 속에서 이성이 실질적으로 활약하면서 이성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베버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따르면, 청교도 신자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다. 베버가 주목한 것은 칼빈주의(장로교) 종파의 ‘예정설’이다. 예정설은 신이 신자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였기 때문에 신자 자신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교리이다. 구원 여부는 태초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인 것이다. 따라서 신자가 구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교회도 사제도 보증해주지 못한다.(반면 카톨릭은 사제와 교회가 신자의 구원을 고해성사 및 미사를 통하여 보증해준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세속적 삶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직업소명설’이다. 즉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업이 하나님에 주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세속 생활에 금욕적으로 충실하고 그에 따라 성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라는 것이다. 이렇듯 칼빈주의의 직업소명설은 신자의 일상생활을 금욕적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금욕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으로 계획된 생활’이었다. 칼빈주의는 수도원에만 갇혀있던 합리적인 금욕생활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모든 신자들이 합리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다.

나아가 이러한 합리적으로 계획된 생활은, 자신이 획득한 자본을 써버리거나 필요한 만큼만 돈을 벌고 놀아버리는 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했다. 자본을 획득한 사람은 소비하기보다는 사업에 재투자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그 성공의 결실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로소 자본주의에 걸맞는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청교도 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모태가 되어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돌파구를 열었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

5. 관료제와 그 역설 : 철장(iron cage)

이렇듯 청교도 윤리를 통해서 돌파구를 연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회조직을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재조직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전통적 관습(전통적 권위)이나 신비로운 지도자(카리스마적 권위)에 따라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조직은 법적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정부, 학교, 군대, 병원, 회사, 교회 등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합리적 질서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합리적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을 ‘관료제’라고 부른다. 관료제는 합리적 질서에 따라 운영되므로 당장은 매우 효율적이다. 조직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성원들은 각자 부여받는 역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의 효율성 뒤에 어두운 측면도 숨어있다. 즉 엄격한 조직적 통제로 개인의 자유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베버는 철장(iron cage)라고 불렀다. 관료제 속에서 개인은 부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나뉘는 개성과 자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료제의 일원인 개인들은 “영혼 없는 전문가, 감정 없는 향락주의자”가 된다. 이러한 베버의 관료제 분석은, 특히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료제가 가진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었다.

6. 결 론

우리는 살다보면 내 자신이 사회의 거대한 조직들 속에서 한낱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개인들의 감정 및 상태와는 관계없이 현대 자본주의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으며, 개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개인들은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운명이다.

베버는 물론 현대 사회가 이성의 승리를 통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진보적 성취들을 찬양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가져다준 어두운 측면도 직시하자고 호소한다. 합리적 조직들이 주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누리되, 그 어두운 면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베버가 제시하는 대안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이다. 시대의 현실을 훈련된 냉정함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베버는 관료제 외부에 있는 정치가·과학자·지식인 등 ‘전문가 그룹들’이 관료제의 폐해를 교정해 주기를 바랐다. 베버 자신도 사실은 그 역할을 맡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도서

막스 베버,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루이스 코저, 신용하 역, <사회사상사>, 시그마프레스

(6) 합의론적 접근과 갈등론적 접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냉전체제가 지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산진영은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하는 갈등론이 지배하였고, 자유진영은 질서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합의론이 지배하였다. 또한 비교적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 연구하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추가될 수 있다.

합의론에서는 사회의 부분요소들 사이에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특정 사회에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개인들의 묶어주는 운영원리에 의해 사회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갈등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과 집단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며 갈등하

기 때문에 사회가 언제나 불안정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사회에 합의된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진 자들의 못가진 자들에 대한 **강제력**이 있을 뿐이다. 갈등론은 마르크스와 다렌도르프가 대표적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른 갈등을 강조했고,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는 **상명하복의 권위구조**에 따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코저(Lewis Coser)는 갈등관계가 반드시 역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며,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합의론과 갈등론의 접근에는 하지만 공통된 전제가 깔려 있다.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개인 외적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호작용론은 사람은 외적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사물이나 인간의 행동, 환경까지도 그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동적 존재로 본다.

현대사회학에서 합의론적 관점의 대표자는 미국의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 1909~1979)이다. 파슨스는 어떤 공통의 합의 기준이 없으면 사회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합의는 다수가 지지하는 ‘문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문화에 의해 외재화된 약속이 **사회규범**이고, 뒤르캤의 용어로는 사회적 사실이다. 사회규범은 개인들에게 강제성을 지니고, 이로써 사회 질서는 유지된다.

파슨스의 이론은 사회행위이론과 사회체계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행위이론**은 자의적인 개인들의 행위로부터 사회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행위를 하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필요하고, 셋째,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가 특정 행위를 선택하는 행위자의 지향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 상황, 지향성**이 세 가지가 사회행위의 기본요소이다. 파슨스는 행위자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행동유형을 분류한 ‘유형변수(pattern variables)’를 제시하였다.

사회체계이론은 사회체계의 기능이 어떻게 개개인의 행위를 설명해주는가를 논한다.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사회체계이며, 그가 말하는 사회체계란 “복수행위자의 상호의존적인 행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이다. 사회행위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복수행위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물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된다. 이 같이 역할을 서로 기대에 걸맞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아와 타자 사이에 일정한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유된 가치(shared value)**가 사회체계의 기초이다. 사회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는 제도화되어 사회구조가 된다.

사회체계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분체계(=하위체계)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기능을 파슨스는 AGIL도식으로 정리하였다.

- 적응 기능 = 경제제도의 기능 : 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
- 목적달성 기능 = 정치제도의 기능 : 체계 존재의 목적 달성
- 통합 기능 = 법, 관습의 기능 : 체계 내 각 부분들을 조정하고 통합
- 잠재적 유형유지와 긴장관리 기능 = 문화, 교육, 종교의 기능

1. 다음 중 콩트의 관점에서 질서와 진보를 맞게 설명한 글은 어느 것인가?

- ①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다.

- ②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목적이다.
- ③ 진보는 질서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 ④ 질서와 진보는 상호 조건인 동시에 목적이 된다.

정답 : 4

2. 다음은 콩트의 사회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콩트는 사회정학을 통해 진보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 ② 콩트의 사회정학은 사회 유기체적 견해이다.
- ③ 콩트의 사회동학은 사회가 유지되고 기능하는 질서의 법칙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 ④ 콩트는 사회학이 실증과학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정답 : 2

3. 다음 중 스펜서(H. Spencer)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진화론적 관점
- ② 기계적 유대와 유기적 유대
- ③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
- ④ 단순사회, 복합사회, 이중복합사회...

정답 : 2

4. 다음 중 허버트 스펜서가 얘기한 군사형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자발적 협동 ② 사적 조직 고취
- ③ 자유무역 ④ 집권적 국가

정답 : 4

5. 다음은 스펜서가 주장한 진화론의 기본원리이다. 이 중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 ② 통합되어진 단순한 것에서 잡다한 것으로
- ③ 동질적인 것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 ④ 기능적으로 세분화된 것에서 미분화된 것으로

정답 : 3

6. 다음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인류역사 발전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순서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 ① 원시 공산사회 체제 → 봉건제 사회 → 노예제 사회
- ② 봉건제 사회 → 자본주의 사회 → 사회주의 사회
- ③ 노예제 사회 → 원시 공산사회 체제 → 봉건제 사회
- ④ 사회주의 사회 → 자본주의 사회 → 봉건제 사회

12. 파슨스의 이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국가나 사회의 목적달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 [illegible]

정답 : 1

13. 다음 중 합의론적 관점의 공통가정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사회의 각 부분요소들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 ② 체계는 언제나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 ③ 사회의 부분요소들은 사회의 와해와 변동에 기여한다.
- ④ 모든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한다.

정답 : 2

14. 다음은 갈등론의 기본기정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사회는 하나의 단일한 전체이다.
- ② 갈등이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 ③ 모든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 ④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다.

정답 : 3

15. 다음 중 코저가 얘기한 갈등집단의 긍정적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집단결속의 기능 ② 집단 재창출 기능
③ 집단구조의 와해 ④ 이데올로기 타파

정답 : 1

5장 문화

(1) 문화의 개념

문화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우리는 문화란 표현을 정교하고 세련되고 도덕적이며 발전된 형태의 사고나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문화시민’이란 용어는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 문화란 말은 ‘교양’이란 말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19세기 타일러는 <원시문화>란 책에서 문화를 “인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습득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기타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총체”라고 정의했다. 이 때 문화의 의미는 인간이 삶을 영위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생활양식’이나 다를 없다.

문화는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면서 배워 익힌 사고, 감정, 행동양식이 사회적으로 규칙이자 기준이 된 것이다. 문화는 개인의 존재와 사고와 이념, 행동양식을 규정해준다. 따라서 개인은 문화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다. 이런 상호작용이 곧 사회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것(물건이나 행동 등)을 **문화의 산물**이라고 한다. 문학, 미술, 무용, 등의 예술 활동과 작품들, 건축물 등이 문화의 산물이다. 문화와 문화의 산물을 구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양식이 문화라면, 그 문화가 구현된 건축물은 문화의 산물이다. 도덕규범은 문화이지만, 도덕규범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문화의 산물이다. 문화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문화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창조성’이다. 문화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에 인간이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다. 인간만이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후천성’이다.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여 습득하는 것이다. 셋째, ‘축적성’이다. 전 세대에게서 물려받은 문화를 현 세대는 그대로 학습할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내용을 첨가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이런 식으로 문화는 대를 이어 축적된다. 넷째 ‘공유성’이다. 개인의 신념이나 생활습관을 문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사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는 동일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체계성’이다. 문화는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서로 관련을 맺으며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경제제도, 정치제도, 예술양식 등은 각각 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와 관련된 종교의식과 예술, 가치체계가 하나의 종합적 체계를 이루어 왔다. 여섯째, ‘보편성’과 ‘다양성’이다. 세계 어느 사회나 문화가 있고 사회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는 다양하다. 일곱째, ‘변동성’이다. 문화는 축적되어 가면서 내용이 변한다.

(2) 문화의 내용

볼드리지(J.V.Baldrige)의 분류에 따르면 문화는 첫째,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과 기술의 축적 및 사회적 상황을 규정해주는 경험적 문화, 둘째,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심미적 문화, 셋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행동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규범적 문화가 있다. **경험적 문화**는 주어진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기술과 지식이 축적된 문화이다. 기후조건에 맞는 주택기술, 음식조리법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축적해왔다. 즉 경험적 문화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하여 미리 상황을 규정해주는 ‘상황 정의’를 제공해준다. 우리는 문화가 규정해주는 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규정된 실체가 현실의 실체인 것처럼 행동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라는 규정된 실체에 따라 모든 사회 상황이 규정될 수 있었던 게 하나의 좋은 예이다.

심미적 문화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정도 문화에 의해서 규정됨을 알려준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기존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기준을 심미적 문화가 제공해주는 것이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란 슬로건은 기존에 백색 피부가 아름답다고 규정해 오던 백인의 심미적 문화에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 문화는 인간 행동의 가치를 제시해 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해주는 행위 기준이 되는 문화이다. 식사예절, 세수하는 법, 걸음걸이, 의복, 성적 욕구 충족의 방법과 대상까지 모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준다. 원만한 사회 공동생활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

는 행동 기준들은 성원들에게 강제성을 지닌다. 하지만 규범의 강제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섬너(William Graham Sumner)의 분류를 참조하여 **민습, 원규, 법률** 세 가지로 사회 규범을 분류할 수 있다. ‘민습(folkways)’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또는 에티켓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행동규칙이며, 강제력이 가장 낮다. 식사예절, 옷입는 법, 말씨, 주도(酒道) 등이 그것이다. 어겼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제재를 받거나 공식적인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비난을 받거나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회적인 따돌림이나 인터넷에서의 공인에 대한 비난 댓글을 떠올려보면, 공식적인 규제는 약하더라도 심리적 영향은 강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규(mores)’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구체화된 행동규범이다. 원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사회적 제재는 강력하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부계혈통에 대한 강조는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낳았다. 근친상간금지기는 모든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규이다. 근친상간이 허용되면 가족 질서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규는 특정 문화에서만 강력하다. 한국인이 쇠고기를 먹는 데는 아무 제재가 없다. 하지만 힌두교인이 쇠고기를 먹는 것에는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 ‘법률(laws)’은 민습, 원규와는 달리 명문화된 사회통제 수단이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민습과 원규로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는다. 민습과 원규,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에 비해 후자는 공식화되고 명문화된 사회통제 수단이다. 둘째, 징계의 범위가 전자는 위반행위는 물론 행위자에게 확대 적용되지만, 후자는 구체적 행위 자체에 국한된다. 셋째, 전자는 마을공동체 혹은 사회성원 전체가 규범의 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후자는 훈련된 전문인(판사, 검사, 순경)만이 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사회규범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강제성만 가지고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규범의 강제성 때문이 아니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규범을 준수하게 되는 것을 ‘규범의 내면화’라고 한다. 규범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구성원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3) 문화의 기능

문화는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고 행동과 욕구를 제시하고 규제한다. 동시에 문화는 사회 질서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해준다. 첫째, 문화가 없으면 인간은 동물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문화는 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적응방식을 제공해준다. 셋째, 문화는 개인의 생존과 안정에 필요한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넷째, 사회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문화는 개인의 욕구를 규제하기도 하고, 욕구의 수준을 제한하기도 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4) 문화의 다양성

멜라네시아의 트로브리안드 섬은 모계제 사회이다. 또한 일부다처제 가족형태뿐 아니라, 일처다부제 가족도 티벳이나 남인도엿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세계 인종과 종족의 수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과 더불어 문화적 가치의 상대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 문화, 한 사회 내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사회 내에도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전체문화와 부분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 사회 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전체문화(지배문화)**라고 한다. **부분문화(하위문화)**는 한 사

회 내의 여러 집단들이 자기 집단 성원끼리만 공유하는 문화를 말한다. 귀족문화, 평민문화, 장인문화, 농민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면서, 부분문화는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부분문화가 너무 많아서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전체사회의 규범이 약화되면 가치관의 혼란, 뒤르캥의 용어로 ‘아노미’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개인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하위문화는 사회에 유연성을 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하위문화 중 **반문화**는 역기능이 더 많다. 반문화는 기존 사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집단의 문화이다. 이를 반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체문화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문화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특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문화는 그 문화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 형의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의례 등이 비록 비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각 문화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화 상대주의가 대두한 이유는 자민족중심주의의 치절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의 모든 것이 타민족, 타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타민족의 문화를 배척하는 이념을 말한다. 2차대전 시기 독일을 지배한 나치즘은 게르만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다 못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화적 우월주의는 자기 문화의 가치관을 아예 다른 집단에게도 강요하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5) 문화의 변동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발견과 발명은 문화변동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외에도 외부의 지식이나 기술, 이념, 사상, 생활습관 등의 도입으로 문화가 변동하기도 한다. 외래문화와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접촉(교역, 유학, 혼인, 여행, 전쟁, 식민화)을 통하여 문화의 내용이 변하는 것을 **문화접촉**이라 하고, 접촉은 하지 않아도 외래문화의 내용이 전파(책이나 선물)되어 문화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문화전파**라고 한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나면 한쪽 혹은 양쪽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문화접변**이라고 한다. 문화접변에는 문화수용, 문화동화, 문화변형이 있다. ‘문화수용’은 두 문화가 접촉을 하되, 각자 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경우이다. ‘문화동화’는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 이민간 사람들이 미국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문화변형’은 두 문화가 오래 접촉하다 보니 각각의 고유문화를 잃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화지체는 문화가 변동할 때 문화 내용이 골고루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고, 어느 측면은 빠르게 변하고 다른 측면은 늦게 변하기에 생기는 문화 부조화 현상이다. 기술적인 것(경험적 문화)은 먼저 변하는데, 그에 걸맞는 가치관(규범적 문화)은 그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오그번(William F. Ogburn)은 문화지체라고 불렀다.

1. 문화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공헌한 타일러(E. B. Tylor)의 저서는 무엇인가?

- | | |
|-----------|----------|
| ① 원시문화 | ② 문화의 개념 |
| ③ 원시인과 문화 | ④ 미개문화 |

정답 : 1

2. 세상에는 '일처다부제가족'도 있고 '일부다처제가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 ① 문화의 보편성 ② 문화의 변동성
- ③ 문화의 공유성 ④ 문화의 다양성

정답 : 4

3. 다음 중 문화의 속성은?

- ① 창조성 ② 개별성
- ③ 유희성 ④ 안정성

정답 : 1

4.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예절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경험적 문화 ② 심미적 문화
- ③ 민습(folkways) ④ 원규(mores)

정답 : 3

5. 부분문화가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선택의 폭이 넓다.
- ②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 ③ 뒤르캤의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
- ④ 사회통제가 강화된다.

정답 : 3

6. 다음 중 문화변동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발명 ② 문화지체
- ③ 문화전파 ④ 문화접촉

정답 : 2

7. 다음 중 문화의 속성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조성 ② 선천성
- ③ 축적성 ④ 공유성

정답 : 2

8. 볼드리지가 구분한 문화의 내용 중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기술과 지식이 축적된 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경험적 문화 ② 심미적 문화
- ③ 규범적 문화 ④ 보편적 문화

정답 : 1

9. 다음 중 규범적 문화의 다양한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습 ② 원규
- ③ 법률 ④ 인지

정답 : 4

10.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표현을 고르시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규범의 강제성 때문
이 아니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 이
것을 규범의 ()(이)라고 한다.

- ① 타당성 ② 상대성
- ③ 정당성 ④ 내면화

정답 : 4

11. 다음 중 한 사회의 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반문화 ② 전체 문화
- ③ 부분 문화 ④ 하위 문화

정답 : 2

12. 다음 중 모든 문화는 그 문화 특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문화전파 ② 문화의 다양성
- ③ 문화적 상대주의 ④ 자민족 중심주의

정답 : 3

13. 다음 중 두 개의 이질적 문화가 접촉하면서도 각각 자체 문화의 가치관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문화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 ① 문화접변 ② 문화수용
- ③ 문화동화 ④ 문화변형

정답 : 2

14. 다음 중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오래 접촉하는 동안 각각 본래의 문화유형을 잃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문화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 ① 문화수용 ② 문화동화
③ 문화변형 ④ 문화지체

정답 : 3

15. 다음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글이다. 설명이 잘못된 글은 어느 것인가?

- ① 문화적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자기 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긍지를 갖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 ②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는 ‘공희의례’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 ③ 자민족중심주의가 자국 내에서 강조될 때에는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④ 인류역사에서 자민족중심주의의 극단적인 행위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 : 2

16. 다음 중 오그번이 사용한 용어로 문화가 변동할 때 문화 내용의 제 측면이 골고루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 ① 문화접촉 ② 문화전파
③ 문화지체 ④ 발명

정답 : 3

17. 재미동포 2, 3세 중에는 우리 말과 글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용어는?

- [illegible]

정답 : 4

6장 사회화와 퍼스낼리티

(1) 사회화의 뜻과 의의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까닭은 반드시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하고 또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감정과 행동을 주고받는 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살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은 ‘사회화’되어진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도덕, 신념 등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동물적 인간이 인간다운 사회

인이 되는 과정이 사회화이다.

사회화되기 전의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즉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 외의 **사회화 대행자들**(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에 의해서 문화의 내용을 습득한다. 그렇다면 나 개인은 이러한 사회화의 내용을 어떠한 과정으로 배우는가? 사회화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지만, 우선 갓난아이가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가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2) 사회화 과정 : 프로이트, 피아제, 미드, 콜리의 이론

먼저 **프로이트**의 성품발달이론을 살펴보자. 프로이트는 욕망의 충족과 좌절을 기준으로 성품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구순기(0세~1세)→항문기(2세~3세)→음경기(3세~5세)→잠재기(6세~11세)→사춘기(11세 이후).

이 중에서 특히 프로이트가 강조한 것은 '**음경기**'이다. 음경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애정을 느끼는데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거세공포를 느껴 결국 어머니를 포기하고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자한다는 내용이다. 음경기까지를 전성기단계(前性器段階)라고 한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사회화를 설명했다.

지각동작단계(0~1.5세)→조작전기단계(1.5세~7세)→구체적 조작단계(7~11,12세)→사춘기(12~14세)→사춘기 이후(15세~)

'구체적 조작단계'에 이르면 유아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단순하게나마 할 수 있게 된다. '사춘기 이후'에야 복잡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사회 규범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세계 속의 나를 인식하기에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미드(G.H. Mead, 1863~1931)는 '자아발달'을 사회화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아발달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아는 사회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자아개념이 생기기 전에 먼저 타인의 개념이 먼저 생긴다. 자아란 타인과 분리되는 나의 존재이다. 자아 개념이나 자아정체성은 언어를 배우거나 기타 상징적 수단을 타인들과 주고받으면서 형성된다. 이 때 자아 개념과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자라고 부른다.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타자 노릇을 한다. 언어를 충분히 배우고 좀 더 자라면 선과 악을 구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일반화된 타자'라고 부른다. 일반화된 타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타자가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추상화된 무엇이다. 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어린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드는 일반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나, **사회적 자아**를 **Me**라고 불렀다. 반면 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러면서도 욕구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충동적인 자아를 **I**라고 불렀다. 또한 미드는 어린이는 '역할학습의 3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단순한 모방행동만 가능하다. 의미도 모르고 모방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유희단계(play stage)'로서 역할의 의미를 이해한다.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경기단계(game stage)’다. 좀 더 자란 어린이는 게임의 룰, 즉 사회에 작동하는 여러 규칙들을 파악하게 된다. 타인의 역할을 학습하고 자신에게 타인이 기대하는 역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여 행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쿨리(C.H.Cooley, 1864~1929)는 ‘**영상자아(거울에 비친 자아the looking-glass self)**’ 개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지 고민한다. 즉 자아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라고 인식하기 전에는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는다.

(3) 사회화의 대행자

인간은 스스로 사회화될 수 없다. 한 개인이 사회화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사회화시키는 사람들을 **사회화의 대행자**라고 한다. 사회화의 대행자에는 가족과 동료집단(친구, 또래), 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이 있다. 가족은 일차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학교는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면서 동시에 비공식적인 사회화 대행기관이기도 하다. 대중매체는 사회성원들을 획일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재사회화(再社會化)란 일차적 사회화에 의해 학습한 가치, 규범, 신조 등을 새로운 가치, 규범, 신념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사회화를 하거나(교도소, 정신병원), 일차적 사회화가 성공해도 군대조직이나 특수집단에서 재사회화를 하기도 한다. 재사회화되려면 먼저 **탈사회화(脫社會化)**되어야 한다. 탈사회화란 말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것(자아정체성을 비롯해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 모두)을 다 잊어버리고 백지화되는 것이다.

(4) 사회화의 결과

사회화된 개인은 첫째,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 둘째, 개인만이 갖는 독특한 퍼스넬리티가 형성된다. 셋째, 자아정체감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인식하게 해준다. 넷째, 사회에서 인정하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희구수준(바라는 기대치, 욕망의 수준)을 결정한다. 다섯째,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수한다. 여섯째, 효과적인 사회화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사회화의 피해자들도 발생한다. 사회화의 피해자들이란 현존 질서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집단들이다. 여성, 장애인,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사는 집단들이다. 현대사회는 가급적 사회화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5) 퍼스넬리티의 형성요인

사회화가 되면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퍼스넬리티(personality)**는 개성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남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진 독특한 속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생김새는 물론, 성격 특성, 인품, 자질, 됨됨이 등 나와 관련된 나의 부속물 모두를 포함한다. 남과 구별되는 나다움이 퍼스넬리티이다.

특정 개인의 퍼스넬리티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생득적 요인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외모, 건강상태, 지능, 성별 등이다. 둘째, 사회화 과정이 주는 영향이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법, 부모의 성격과 가치관,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유형과 친밀도, 타인과의 접촉의 폭과 깊이, 사회화 대행자의 특성 등이 작용한다. 셋째로 심리적 요인이 있다. 심리

적 욕구충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퍼스넬리티가 영향을 받는다.

(6) 사회와 퍼스넬리티

데이빗 리스만(D. Riesman)은 한 사회의 개인들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퍼스넬리티를 사회적 성격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회 발전단계에 따라 퍼스넬리티 유형을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자지향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전통지향형 퍼스넬리티**는 전근대 사회의 퍼스넬리티로, 개인 행동이 문화적 전통이나 가족, 친척의 선택에 의해 행해진다. **내부지향형 퍼스넬리티**는 초기 공업사회에서 등장하며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개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목표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다. **타자지향형 퍼스넬리티**는 2차대전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소비문화가 발달하면서 등장하며, 자신의 내적인 신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1. 프로이트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남자 어린아이가 '거세공포(去勢恐怖)'를 느끼고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될 수도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 | | |
|-------|-------|
| ① 음경기 | ② 잠재기 |
| ③ 사춘기 | ④ 항문기 |

정답 : 1

2. 어린이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린이의 자아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 | |
|-----------|----------|
| ① 가족 | ② 중요한 타자 |
| ③ 일반화된 타자 | ④ 학교 선생님 |

정답 : 2

3. 어린이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 | | |
|--------|----------|
| ① 유희단계 | ② 지각동작단계 |
| ③ 준비단계 | ④ 경기단계 |

정답 : 4

4. 아동의 지능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치며 인지가 성숙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특정 단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학자는 누구인가?

- | | |
|--------|-------------------|
| ① 프로이트 | ② 피아제(J. Piaget) |
| ③ 미드 | ④ 에릭슨(E. Erikson) |

정답 : 2

5.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일반인을 일컫는 미드(G. H. Mead)의 용어는 무엇인가?

- | | |
|-----------|-------------|
| ① 일반화된 타자 | ② 초자아 |
| ③ 중요한 타자 | ④ 거울에 비친 타자 |

6. 다음 중 사회화의 다양한 대행자 또는 대행기관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가족 ② 동료집단
③ 학교 ④ 교도소

7. 이미 형성된 자아 정체감과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모두 잊어버리고 백지화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재사회화

② 탈사회화(脫社會化)

③ 예기사회화(豫期社會化)

④ 과잉 사회화(over-socialization)

8. 다음 중 사회화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아정체감 형성 ② 퍼스낼리티 형성

③ 사회화의 피해자 발생 ④ 사회갈등과 문화변동

9. 다음 중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자지향형 퍼스낼리티를 분류한 학자는?

① 리스만 ② 섬너
③ 피아제 ④ 공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갖는다. 그런데 각 사회적 위치와 지위에는 일정한 **사회적 기대**가 주어진다. 사회적 기

대는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나기에 구조적 모양새를 갖추며 개인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사회적 실재이다. 역할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대이다. 역할은 어떠한 특정 지위에 놓인 개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통제하는 힘을 사회적 제재라고 하는데, 역할은 사회적 제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거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비난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재를 받게 마련이다. 물론 역할에 대한 기대는 각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성(sex)과 연령(age)은 생물학적인 속성을 가진 범주이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사회적 기대는 성과 나이에 따른 역할기대이다.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사회적 기대, 여자답게 처신하라는 사회적 기대, 나이값 하라는 사회적 기대도 존재한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행동해야, 청년은 청년답게 행동해야 한다. 보통의 결혼연령이 한참 지났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이면 나이라는 변수 하나로 주변의 크고 작은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는 나이와 성별이 결합하여 노처녀라는 명칭을 얻으며 더 큰 사회적 제재를 경험한다. 따라서 성과 나이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학적 변수인 것이다. 이처럼 역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은 온통 하나의 무대요. 남녀 모두는 배우”라고 묘사했다.

(2) 사회적 제재와 역할

역할에 따른 사회적 기대(=역할기대)가 똑같은 강도의 구속력(제재)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기대처럼 강도 높은 제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대는 가벼운 제재를 가한다. 또한 제재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역할기대에 따른 행동을 ‘보상’해주는 것도 제재의 한 형태이다.

다렌도르프는 역할기대를 강제성에 따라 **법적 기대**, **사회문화적 기대**, **용인적 기대**로 분류하였다. 법적 기대를 어길 때에는 형벌이라는 부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사회문화적 기대는 사회적 구속력을 가질 뿐 법적 제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다. 종종 사회문화적 배제와 따돌림이 법적 징계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기대에 부합하려고 물리적 처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인적 기대는 어기는 것이 용인되지만 되도록 지키는 것이 좋은 기대이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매일 한 시간씩 대화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법적 기대와 사회적 기대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문화적 기대가 성문화된 것이 법적 기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 기대와 사회문화적 기대가 상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양심수나 정치범의 경우가 그 예이다. 정치범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대중들의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대표하고 새로운 체제를 상징하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법적 기대와 사회문화적 기대가 일치해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원만해진다. 법규범의 정당성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3) ‘사회학적 인간’의 문제점

사회학적 인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이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역할 연기자로 성숙해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화라는 개념은 두 가지 전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는 전제다. 또 하나는 인간 행동은 외부로부터 규제받아야 한다는 전제이다. 즉 규제받지 않고는 성숙한 사회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③ 용인적 기대 ④ 기술적 기대
정답 : 3

5. 다음은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 ① 역할은 준객관적 복합체로서 개개인과 관계없는 행위 처방이다.
② 역할은 사회적 제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가신 사회적 사실이
기도 하다.
③ 역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역할은 사회구속력을 갖고 개개인의 행위를 통제한다.

정답 : 3

6. 역할은 상호 기대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이 켜질 때 건
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기대에 의한 것인가?

- ① 사회적 기대 ② 관습적 기대
③ 용인적 기대 ④ 법적 기대

정답 : 4

8장 집단과 조직체

(1) 집단의 수준

사회집단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무리이다. 개념이 모호하므로, 세 가지 기준
으로 집단을 파악해 보자.

첫째, 동류의식의 유무

둘째, 개인들 간의 사회관계의 수준 또는 유무

셋째,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 조직의 유무

세 기준에 따라 집단을 다음 네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류의식	사회관계	공식조직
통계적 범주	-	-	-
사회적 범주	+	-	-
사 회 집 단	+	+	-
결 사 체	+	+	+

통계적 범주란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동류의식도, 사회관계도, 공식조직도 갖
고 있지 않다. 사회적 범주는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무리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집단들과 구별될 때 동류의식이 생긴다. 사회집단은 사회적
범주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지닌다. 함께 사회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관계를 맺는 것을 넘
어서서 공식적 조직을 만들게 되면 결사체(association)가 된다.

(2) 집단의 분류

쿨리는 사회집단을 **일차집단(공동체, 게마인샤프트)**과 **이차집단(결사체, 게젤샤프트)**으로 나누었다. **일차집단**은 갓 태어난 인간을 성숙한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일차집단은 면대면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며, 집단이 소규모라야 하고, 잦은 접촉과 사귀어 있어야 한다. 일차집단의 인간관계는 인격적이다. 쿨리는 초기사회화 과정은 일차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며, 인간 본성이 일차집단 안에서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차집단**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으로,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상대방의 기술이나 지위를 주로 보며, 상대방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인간관계가 부분적인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집단 안에서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접촉한다.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차집단이 가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관계, 종교적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도 일차집단이다. 또한 이차집단 속에서도 일차집단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차집단 내부의 일차집단적 관계가 이차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기업체를 연구한 **메이요(Elton Mayo)**는 ‘**인간관계론**’을 주장하며, 경제적 유인만이 노동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른 노동자들과의 일차집단적 관계가 노동의욕 증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의 분류 이외에도 내집단(우리집단)과 외집단(그들집단)으로 나눌 수도 있다. 내가 속해 있어 동류의식이 강한 집단을 내집단이라고 하며, 외집단은 내집단과 구별 짓고 싶은 외부의 집단이다.

(3) 준거집단(reference group)

보통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행위와 태도를 연구할 때, 현재 소속된 집단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절도 행위를 한 청년의 범죄를 그가 속한 계급과 지역과 가족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소속집단만으로 인간의 행위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간은 현재 소속되지 않은 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따라서도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이동이 활발해지는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은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에 꼭 소속되고 싶은 집단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심지어 소속집단의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준거집단은 하이만(H.H.Hyman)이 처음 사용했을 때에는 비교기준이 되는 집단을 의미했다. 사람은 자기 지위의 높낮이를 평가할 때 남의 지위를 비교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를 비교준거집단이라고 부른다. 비교준거집단은 ‘상대적 박탈감’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다. 준거집단에는 규범적 준거집단의 의미도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의 규범을 즐겁게 준수하고 싶을 때에 그 집단은 그 사람에게 규범적 준거집단이다. 그런데 현재 소속집단을 벗어나고 싶을 때에는 속하지 않은 집단(비회원집단)이 준거집단이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청년이 있을 때, 그는 의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견적 사회화**’라고 부른다. 예견적 사회화는 종착지위(의사 지위)가 요구하는 삶의 양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반면 원천지위(가난한 집안형편)는 때로는 부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종착지위를 성취할 능력이 없는데, 종착지위를 자신의 규범적 준거집단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주변적 인간**’이 되고 만다. 원래 주변인(경계인)이란, 서로 다른 두 집단에 한꺼번에 소속되어 있으나 두 집단의 변두리에 속해 있는 존재이다. 현대사회처럼

인간의 욕구가 치솟기 쉬운 상황에서는 이른바 ‘자격 없는’ 청년들도 종착지위를 향해 달릴 수 있다. 예견적 사회화 과정에 들어가서 환상적 바램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변인은 아노미에 시달리며, 일탈과 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머튼은 ‘비동조자’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규범 파괴자의 행위에 주목했다. 즉 고차원적인 신념으로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비동조자이다. 이들은 실정법은 거기되, 그 나름의 규범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고차원의 규범에 준거하여 이 사회를 변혁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4) 관료제

관료제는 다수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규모의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이다. 관료제는 명령계통이 분명하고, 명백한 업무 규정과 업무 절차가 정립되어 있는 결사체이다. 막스 베버는 근대화의 과정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와 세속화도 진전되면서 관료제는 더욱 강화된다. 관료제는 예측 가능한 합리성을 조직의 본질로 삼는다.

관료제의 순기능을 살펴보자. 첫째, 관료제는 지위에 따른 임무를 명쾌하게 규정한다. 어떤 사람이 임무를 하다가 그만두어도 그 임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책 담당자의 행위는 예측 가능한 것이다. 둘째, 충성은 직책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셋째,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 전근대 사회처럼 사사로운 인간관계로 직책을 맡는 사람을 충원해서는 안 된다. 능력원칙이 중요하고,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넷째, 진급 또 재직 보장에 필요한 여러 수단들을 제공한다.

관료제의 역기능도 많다. 첫째, 관료제는 비인간화를 조장한다. 공식성은 경직성을, 위계질서는 몰개성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절차합리성이 번문옥례(red tape)를 조장하기도 한다. 쓸데없이 도장을 많이 찍고 서류를 만드는 등, 절차와 과정이 번거롭게 많아질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도록 한다. 절차를 생략하려고 급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관료제에서 일하는 사람은 훈련된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 있다. 한 분야에는 유능하나 다른 분야에서는 무능력자가 되기 쉽다. 융통성이 없거나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관료는 윗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 복지부동이 만연한다. 이렇게 되면 최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전체 조직이 좌우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관료제 원래의 합리성과 생산성은 훼손되고 만다.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조직 개혁도 좌절되고 만다.

1. 다음 중 일차집단이 아닌 것은?

- ① 소꿉놀이 친구들 ② 유치원 선생님들
- ③ 사이버 채팅친구들 ④ 형제자매

정답 : 3

2. 산업현장의 연구에서 메이요(E. Mayo)가 발견한 중요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 ① 경제적 유인만이 노동의욕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 ② 윗 사람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의 빈도와 노동의욕의 정도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 ③ 작업장의 바로 윗 단계의 사람의 성격에 따라 노동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④ 이차집단내에서도 일차집단적 관계가 노동의욕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답 : 4

3. 학교는 다음 집단의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통계적 범주 ② 사회적 범주
- ③ 결사체 ④ 사회집단

정답 : 3

4. ‘결사체’는 다음 중 어떤 집단의 속성이 있는가?

- ① 일차집단 ② 이차집단
- ③ 공동체 ④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정답 : 2

5.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적 배려 ② 재직보장
- ③ 능력원칙 ④ 지위에 따른 명백한 임무규정

정답 : 1

6. 다음 중 쿨리가 분류한 일차집단의 요건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
- ② 가끔씩만 만나야 한다.
- ③ 철저히 자기 몫을 챙겨야 한다.
- ④ 대체로 소규모여야 한다.

정답 : 4

7. 각종 동아리 모임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통계적 집단 ② 사회적 집단
- ③ 사회집단 ④ 결사체

정답 : 3

8. 다음 중 일차집단 형성의 필요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면대면 관계 ② 이익창출
- ③ 소규모 ④ 잦은 접촉

정답 : 2

9. 다음 중 게젤샤프트(Gesellschaft)를 설명하는 것은?

- ① 이차집단적 성격 ② 공동체
- ③ 유사성 ④ 기계적 유대

정답 : 1

10. 다음 중 어떤 개인이 현재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집단의 요청과 기대, 규범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때 이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집단 ② 게마인샤프트
- ③ 동료집단 ④ 준거집단

정답 : 4

11.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묻곤 한다. 이 질문을 사회학적 용어로 생각한다면 어린이에게 무엇을 묻는 것인가?

- ① 원천지위
- ② 예견적 사회화
- ③ 종착지위
- ④ 비교지위

정답 : 3

12. 다음 중 원천지위의 삶의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착지위에 알맞은 삶의 양식을 배우는 것을 가리키는 가장 적합한 용어는?

- ① 재사회화
- ② 탈사회화
- ③ 초기사회화
- ④ 예견적 사회화

정답 : 4

13. 다음 중 머튼이 얘기하는 비동조자의 여러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소속집단의 규범을 어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다.
- ② 소속집단의 규범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 ③ 소속집단의 규범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 ④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규범을 어긴다.

14. 다렌도르프는 강제성에 따라 역할기대를 구분한다. 다음 중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지키는 것이 좋은 기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법적 기대 ② 사회 문화적 기대
③ 용인적 기대 ④ 기술적 기대

15. 다음 중 관료제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정답 : 3

① 통계적 범주 ② 사회적 범주
③ 사회집단 ④ 결사체

① 예견적 사회화 ② 비교준거집단
③ 비동조자 ④ 주변적 인간

9장 사회제도

제도는 사회성원들이 집단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질서의 형식이며, 성원들의 행동양식을 통해 실천되도록 상벌기제를 동반하는 문화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또한 사회적으로 시인되고 공식화된 인간의 고안물이다.

사회제도가 형성되려면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음에는 자생적이고 시험적이던 인간 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기대할 수 있고, 유형화되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모습’을 띠게 되면 **제도화**가 일어난 것이다. **제도**는 인간과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들로 이루어진 형식적, 비형식적 규범복합체이며, 추상적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는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집단이나 조직체를 통하여 기능한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는 학교라는 구체적인 건물과 조직(체)를 통하여 기능하고, 정치제도는 행정부와 같은 구체적인 부서와 조직(체)을 통하여 기능한다.

제도는 **제도의 중요성**에 따라 ‘**기초적 제도(원초적 제도)**’와 ‘**보조적 제도(파생적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의 중요성은 첫째, 그 제도가 얼마나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며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가, 둘째, 얼마나 오랜 기간 존속되어 왔는가, 셋째, 시간·공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특정 사회와 특정 시대에만 나타났던 제도인가에 따라 판별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종족보존, 사유재산, 국가, 교회, 학교 등에 관여하는 제도, 즉 가족, 경제, 정치, 종교, 교육제도 등을 ‘**기초적 제도**’라고 하며, 오락이나 휴양 등에 관여하는 제도를 ‘**보조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제도는 또한 기능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파슨스(T. Parsons)**는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사회체계가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 기능을 그는 사회체계 유지의 기능적 요건이라고 불렀다. 4가지 기능은 하위체계인 사회제도가 담당한다. 사회체계 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들(AGIL)이란 첫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적응의 기능(adaptation : A)**, 둘째, 체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달성의 기능(goal attainment: G)**, 셋째, 체계 내의 각 부분들을 통합해야 하는 **통합의 기능(integration : I)**, 넷째, 잠재적 유형유지와 긴장처리의 기능(latency : L)을 말한다. AGIL로 약칭되는 각각의 기능을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것이다. 적응의 기능(A)은 경제제도가, 목표달성의 기능(G)은 정치제도가, 통합의 기능(I)은 법제도가, 그리고 유형유지와 긴장처리의 기능(L)은 종교와 교육 같은 문화제도와 가족제도가 담당함으로써 사회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존속되는데 기여한다.

<사회 내의 4가지 하위체계>

문화체계

사회체계

L(잠재성-유형유지) 일반적 가치 학교, 가정, 교회	I(통합) 규범 결속, 연대감, 명망 법
A(적응) 물질적 조건 기업 돈	G(목표) 조직 정치, 정부 권력

행동유기체

인성체계

* 진하게 표시한 가치, 규범, 돈, 권력은 각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매체’들임.

그러면 사회제도는 개인과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도의 기능에는 ‘드러난 기능(명시적, 현재적 기능)’과 ‘숨은 기능(잠재적 기능)’이 있다. 드러난 기능이란 제도가 처음에 의도했던 기능을 말하며, 숨은 기능이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 기능을 순기능, 방해가 되는 기능을 역기능이라고 한다.

1. 사회제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잠재적 기능 ② 역기능
- ③ 현재적 기능 ④ 순기능

정답 : 1

2. 다음 중 사회제도가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명시적 기능 ② 잠재적 기능
- ③ 역기능 ④ 순기능

정답 : 4

3. 사회제도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음 중 표출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기초적 사회제도는 어느 것인가?

- ① 정치제도 ② 가족제도
- ③ 경제제도 ④ 종교제도

정답 : 4

4.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순기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제도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잠재적 기능
- ② 명시적 기능
- ③ 현재적 기능(manifest function)
- ④ 드러난 기능

정답 : 1

5. 전근대 사회에서는 가족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종교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 종교, 교육, 경제 제도 등이 나타나 각각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 ① 제도의 발전 ② 사회제도의 변화

③ 제도의 분화

④ 기능의 해체

정답 : 3

6. 다음 중 파슨스가 주장한 사회체계 존속에 필수적인 기능적 요건을 나열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적응의 기능

② 목표달성의 기능

③ 해체의 기능

④ 긴장처리의 기능

정답 : 3

7. 파슨스가 분류한 사회체계 유지의 기능적 요건 중 긴장처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경제제도

② 정치제도

③ 법제도

④ 가족제도

정답 : 4

10장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1) 사회계층의 개념

사회계층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구조화된 불평등 체계’를 말한다. 사회계층은 불평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이 나타나고, 사회성원 상호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기대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예측가능한 태도와 행동으로까지 고정되어진 불평등 체계이다.

사회계층은 **최소한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형성된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없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위신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회가 분업화되고 다양화될수록 각종 직업이 생겨나고 지위의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열화 된다. 계층은 이와 같은 지위의 서열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동일한 최소가치를 분배받고 동일한 사회층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사회계층이다. 개인의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은 계층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계층과 함께 많이 쓰이는 용어가 ‘**계급(class)**’이다. 계층과 계급은 어떻게 다른가? 계층은 지위와 수입 등이 상하로 배열된 서열구조이며, 일종의 연속적 개념이다. 상류층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는 사람과 중류층의 제일 위에 위치한 사람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서열상의 양적 차이만 있다. 하지만 계급은 첫째, 비연속적인 대립과 단절을 전제로 한다. 가령,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계급은 주관적 소속감(계급의식)이 중요하다. 자신의 계층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고 강한 소속감이 있으면 계급의식이 형성된 사람인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을 가진 계급을 자본가,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계급을 노동자(무산자)로 분류했다. 셋째, 계급은 집단적인 응집력을 전제한다. 양극의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뭉쳐야 한다.

계층구조의 유형은 **완전성층형**, **부분성층형**, **부분평등형**, **완전평등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성층형(Ⅱ)은 모든 사회성원이 상하로 줄세워지는 계층유형으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를 나타낸다. 반대로 완전평등형(=)은 모든 사회성원이 횡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평등한 사회를 나타낸다. 부분성층형(△)은 하류층이 비대한 계층구조이다. 부분평등형(◇)은 어느 정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져 중간층이 많아진 경우이다. 복지사회로 발전하면 점점 중간층이 비대한 부분평등형이 된다.

칼 마르크스는 계층을 규정할 때 경제적인 요인을 단일 차원으로 강조했다. 생산수단을 가졌는가,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가 계층의 결정요인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동일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을 즉자적 계급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주관적인 계급의식을 지니게 되면 ‘대자적 계급’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 **막스 베버**는 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지위(명예, 위신)와 권력(파벌)도 계층형성의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계층을 베버처럼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한 개인이 희소가치의 배분에서 점하는 위치가 차원별로 다를 때 지위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즉 한 개인이 점하는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지위불일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장이 교육 차원에서는 하위지위이고, 경제적 차원과 명예와 위신에서는 상위 지위일 수 있다. 또한 시인이냐 학자가 경제적 차원에서는 하위 지위이지만 명예와 위신에서는 상위 지위일 수 있다.

(2) 계층이론

왜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가? 왜 사회성원들은 불평등한 분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 계층이론에는 사회불평등 현상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파악하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불평등은 주로 사유재산제와 지배층의 강압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하는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

기능주의는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강조한다. 불평등한 분배도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데이비스-무어(K.Davis-W.Moore)**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는 많은 직업과 일을 필요로 한다.
- 그런데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어렵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한다.
- 따라서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재능있고 특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 재능있는 사람이 어려운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 이들이 어려운 일을 하게 하려면 희소가치를 좀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 즉 보상을 더 많이 해야 한다.
- 보상에는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명예, 위신, 존경 등 정신적 보상도 포함된다.
- 이 같은 과정에서 차이가 생겨난 보수의 불평등 체계가 사회계층이다.

이처럼 사회의 불평등체계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기능주의의 주장이다.

반면 **갈등론적** 관점은 보상이 특정 가치와 규범에 근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렌도르프**는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에 잘 동조해야 하는데, 가치와 규범은 사회마다 다른데, 특정가치만이 선별적으로 강조되면 그에 따를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겨난다. 가치의 선별과정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과 집단의 가치가 선별되게 마련이며, 일단 선택된 가치는 제재와 보상을 통해 사회성원들에게 강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튜민(Melvin M. Tumin)**은 앞서의 데이비스-무어 이론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다.
- 인간 능력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 유능한 인재가 훈련받는 동안 쓰는 교육비는 사실상 부모가 부담한다.
- 재능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부여 요인으로 사회봉사 의식이나 사회적 의무감을 갖도록 사회화할 수도 있다.

심지어 튜민은 사회불평등의 ‘역기능’까지 지적하였다. 계층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가능성이 제한되며, 긍정적 자기평가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므로 창조적 가능성의 발달을 저해한다. 좀 더 자세히 부연설명하면,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가 적게 주어지면, 결국 인재가 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비하를 하게 되어 창조성도 펼치지 못하고 사회의 정해진 틀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사회이동

사회이동은 분배체계에서 개인의 위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계층상승을 바란다. 그만큼 사회이동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이동의 가능성과 폭은 어떻게 결정될까?

사회이동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귀속적인가, 업적적인가?** 즉 개인 능력을 타고난 혈통이나 부모의 지위에 의해 평가하면 사회이동은 제약받는다. 개인의 업적을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이동이 활발해진다.
- **사회구조의 분화 정도.** 사회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으로 분화가 되어야 1인이나 소수의 권력독점이 어려워진다. 그래야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종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력과 무관하게 문화적 지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소가치를 분배하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즉 권력이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분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야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 개인의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사회이동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공업화가 되면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업적 위주로 변한다. 혁명의 시기에는 상승이동도 일어나고 하강이동도 일어난다. 기존 세력은 몰락하고 신진세력이 부상하는 것이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도 중요하다. 출생, 사망, 계층별 출산력, 인구전출입 등이 사회이동에 영향을 준다. 동령인구가 적으면 아무래도 취업 사정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능력, 교육 정도, 상승이동에의 열망** 등이 있

사회이동의 유형은 이동의 방향에 따라,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이동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이동은 계층에는 변동이 없으나 다른 직종으로 간다거나 같은 등급의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간적 거리에 따라, 세대내이동과 세대간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의 일생 안에서 계층이 변하는 경우가 세대내이동이다. 반면 조부모, 부모의 세대에서 자신 그리고 자식의 세대를 걸쳐 변화하는 경우가 세대간이동이다. 세대간 상승이동을 할 수도 있고, 세대간 하강이동을 할 수도 있다.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할까, 그렇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사회이동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사회이동에 그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대한 열망이 전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동이 대다수 성원에게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의 여러 차원에 골고루 이동이 일어나야 한다. 계층 간 문화적 단절도 최소화되어야 하고, 사회이동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기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 ①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희소가치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② 사회적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위계배열이 고정화 되어 일정한 유형으로 굳어진 현상을 말한다.
- ③ 사회적 희소가치를 다르게 향유하는 사회층들이 점차 일정한 위계서열에 의해 배열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④ 단순히 지위의 서열화를 말한다.

① 완전성충형 ② 부분성충형
③ 부분평등형 ④ 업적주의형

① 베버 ② 파슨스
③ 렌스키 ④ 마르크스

- ① 지위불일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 ② 지위불일치한 사람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③ 지위불일치한 사람은 기존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 ④ 지위불일치를 느끼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5. 다음 중 개인의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요인은 어느

① 전쟁 ② 개인의 능력
③ 상승이동에의 열망 ④ 교육정도

① 공업화 ② 혁명
③ 교육정도 ④ 인구의 전출입 유형

- ① 전통적인 중상층 보다는 노동자층의 상승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② 실질적으로 사회이동이 대다수 사회 성원에게 실현되어야 한다.
- ③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이동이 골고루 진행되어야 한다.
- ④ 각 계층간, 개인 상호간의 문화적 단절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① 자산 ② 명예
③ 정치적 지위 ④ 생산수단

① 렌스키(G. Lenski) ② 다렌도르프(R. Dahrendorf)
③ 튜민(M. Tumin) ④ 무어(W. Moore)

① 완전성증형 ② 부분성증형
③ 완전평등형 ④ 부분평등형

정답 : 4

16. 계층(계급)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마르크스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① 경제적 요인 ② 가문
- ③ 명예 ④ 권력

정답 : 1

17. 다음 중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하나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직업분리지수
- ② 엔겔계수
- ③ 사회경제적 지위
- ④ 지니 계수

정답 : 4

<심화보충 학습> 한국의 사회불평등 현황 알아보기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체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반면 0에 가까워지면 소득이 평등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90년도(0.266)부터 2008년(0.316)까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와 도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 다음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것이 ‘소득5분위배율’이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수준 상위20%의 소득을 하위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5분위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류층에 비해 하류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5분위배율은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주는데도 도움이 된다.

연 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 간
2003	5.52	5.08	5.43	5.09	4.80
2004	5.46	5.02	5.39	5.46	4.86
2005	5.86	5.28	5.62	5.28	4.97
2006	5.73	5.18	5.74	5.40	5.05
2007	5.86	5.23	5.55	5.42	5.18
2008	5.83	5.25	5.51	5.21	5.15
2009	5.92	5.11	-	-	-

(연합뉴스 2009.8.28)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828120116043&p=yonhap>

(참고기사) ◇ 소득불평등 악화 계속..고소득층 자산 '증가' 저소득층은 자산 '감소'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계층간 소득·자산 격차도 커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전국, 시장소득 기준)는 지난 2007년 0.340에서 2008년 0.344, 2009년 0.345로 갈수록 커졌다. 2009년의 0.345는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그러다 2010년 0.341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계층간 소득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2006년 6.65배, 2007년 7.09배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7.38배, 2009년 7.70배, 2010년 7.74배까지 치솟았다.

또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6.6%, 2007년 17.3%에서 2008년 17.5%, 2009년 18.1%, 2010년 18.0%로 높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2006년과 2010년의 소득분위별 가계자산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자산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1944만원 감소했다. 하위 20~40%인 2분위의 자산도 같은기간 3243만원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자산은 같은기간 317만원 줄어드는데 그쳤고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자산규모는 오히려 1876만원이나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전월세 보증금이 증가로 저축액이 크게 줄어 자산이 쪼그라든 반면, 고소득층은 비중이 높은 금융저축액이 크게 늘어 자산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규모는 금융위기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충격이 더욱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순자산감소는 1405만원에 달했고 2분위 역시 3000만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계층인 4, 5분위의 경우 순자산 감소폭이 각각 265만원,

397만원에 그쳤다.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과거처럼 수출호조가 중소기업과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소득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토마토TV 2011.2.2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224224014832&p=tomato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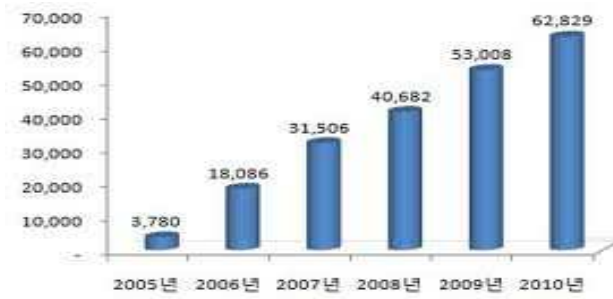
- 불평등의 중요한 고리인 부동산과 교육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양극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이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봉급쟁이(가구당 년4천만원 수입, 저축가능액 8백만원으로 할 때)가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는 29년, 강남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는 44년이 걸린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한다.



(출처) 손낙구, <부동산계급사회>, 후마니타스

또한 대학입학률이 80%를 돌파하는 한국사회에서 등록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같은 정책(2009년)이 나왔는데, 취업이 불투명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취업이 안되어 원금을 못 갚을 경우 이자가 붙어 엄청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이 상승 '사회이동'을 낳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때, 과다한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기회의 부여가 차단되는 결과를 낳아, 향후 한국사회가 불평등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도표처럼 대학학자금 대출액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빚의 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출처) 박주선 민주당최고위원실 자료

11장 일탈, 범죄와 통제

(1) 일탈을 보는 시각

일탈행위란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행위를 뜻한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 내재하는 역할기대를 어기는 행위인 것이다.

일탈을 보는 관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탈을 **일탈자의 속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일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이고, 생물학적 근거를 가질 수도, 심리학적 근거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일탈은 특정 행위에 대한 특정 **사회의 반응**으로 보는 관점이다. 어떤 행위에 대해 사회나 정치당국이 일탈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탈이 된다고 본다. 즉 일탈을 통제하는 쪽이 일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 행위는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때로는 자의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이 두 관점을 종합하는 시각이다. 일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실재에 대해 반응하는 사회의 낙인이다. 일탈이라는 실재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공식적 낙인이나 명명이 없으면 일탈행위가 성립되기 어렵다. 어떤 범죄는 쉽게 일탈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낙태, 매매춘, 도박, 정치적 시위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부감이 동반되어야 일탈로 규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정치적 시위에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적다면 그것을 일탈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진다.

(2) 고전적 범죄이론

베카리아는 프랑스혁명 이전의 프랑스 구체제(앙시앙레짐)의 가혹한 형벌에 반대하여,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으며, 그로부터 사회 안정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벌 **동가주의** 원칙을 주장했다. 형벌은 범죄로 파기된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사형의 고통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사형보다는 장기징역이 낫다. 사형제도를 비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확실하고 법집행은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베카리아와 유사하지만, 경제적 이익에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하되, 공적 영역의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범죄를 통제하는 문제는 공적 영역에 속한다. 벤담은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제도를 제안했는데, 이는 감옥 중앙에 높은 감시대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감방을 배열하여 죄수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개혁안이었다.

베카리아와 벤담은 고문폐지 등을 주장하여 인권신장에 공헌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으로써 법의 평등과 재산의 불평등 간의 모순을 방치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다 못해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적 본성을 인정하고 말았다. 또한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면서도 형벌의 증가성을 옹호하는 것도 모순이다.

<심화보충 학습> 미셸 푸코가 묘사한 벤담의 파놉티콘 : 일방감시장치

벤담의 ‘일방감시시설(panopticon)’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이다. 그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을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의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인이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그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킨다. 그는 보여지긴 해도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중략) 이로부터 일방감시시설의 주요한 효과가 생겨난다. 수감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작용에 중단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도록 하며, 또한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켜 가도록 한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어떤 권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도록 해준다. 요컨대 수감된 자가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수가 간수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되는 방법은 매우 충분한 것이면서 동시에 불충분한 것이기도 하다.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 죄수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고, 매우 충분하다는 것은, 죄수가 실제로 감시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벤담은 권력이 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가시적이란, 감금된 자의 눈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중앙탑의 높은 형체가 항상 어른거린다는 뜻이다.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감금된 자가 자신이 현재 주시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결코 알아서는 안되지만, 자신이 항상 주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3) 신고전적 범죄이론

신고전론은 ‘억제이론’으로 불린다. 범죄억제에는 특수억제와 일반억제가 있다. 특수억제는 이미 형벌을 받은 자들의 범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재범문제, 재활문제, 무력화 등이 해당된다. 일반억제는 아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 사람들의 범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신고전론자들은 형벌을 독립변수로 보고, 범죄율을 종속변수로 본다. 형벌의 객관적 조건은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을 가져야 한다. 형벌이 엄격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집행된다면, 범죄억제도 효과적이어서 범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형벌의 주관적 조건

은 억제 대상자들이 형벌의 객관적 조건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아무리 형벌이 엄격해도 기존 범죄자나 잠재범죄자들이 엄격하지 않다고 인지하게 된다면 범죄 억제 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 범죄억제 효과를 높이는가? 특수억제의 경우, 형벌의 엄격성은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수감기간 중 오히려 범죄기법만 배우고 범죄자들과의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게다가 전과자로 낙인효과마저 지니게 된다. 일반억제의 경우, 체포율과 수감률이 높다고 범죄율이 꼭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 공포가 범죄를 억제할 수도 있고, 아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효과적인 범죄억제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사형, 무기징역,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거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회구조에 범죄유발요인이 내재해 있다면, 장기수감을 해도 범죄가 억제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 즉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벌의 확실성과 엄격성과 신속성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표현적 범죄**, 즉 걱정적 우발적 범죄인 경우 신고전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4) 기능론적 일탈이론

일탈에 대한 ‘기능론’의 시각은, 범죄나 일탈도 나름대로 사회체계의 안정에 유익하기에 존속한다고 본다. 범죄가 사회체제 유지의 순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첫째, 일탈행위는 사회적, 도덕적 경계를 분명하게 알리는 효과를 지닌다. 둘째, 일탈행위로 인해, 일반인들이 일탈자나 범죄자를 국외자로 몰아붙임으로써 자기들끼리의 연대를 강화한다. 셋째, 일탈행위에는 비동조행위도 있어 낡은 규범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의 범죄자가 내일의 개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일탈행위가 긴장을 해소시키기도 한다. 카니발 같은 일탈행위를 용인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 잘만 용인하면, 사회의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기능론적 일탈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다. 뒤르캤은 인간의 욕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규범이 무너진 상태를 아노미라고 불렀다. 규범은 치솟는 욕구를 관리하는 한편, 옳고 그름을 판별해준다. 그러므로 규범이 와해되면 인간의 욕구는 통제를 벗어나 치솟게 되고 옳고그름을 판별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탈이 아노미적 일탈이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호황과 불황, 급속한 기술지식 발전 등 분업이 발달한 현대사회로 갈수록 아노미 상태가 증가한다.

머튼(R.K.Merton)은 뒤르캤의 아노미론을 발전시켜, 인간의 욕구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경제적 욕구는 문화와 사회에 따라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문화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적 수단이란 합법적인 수단을 말한다. 모두가 물질적으로 출세하고 싶어 하지만, 그 목표를 정당하게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합법적 수단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의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에 격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머튼은 공통의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관계에 따라 아노미와 일탈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

	목표	수단
동조행위(일탈 아님)	+	+
고안형	+	-
의례주의형	-	+
은둔형	-	-
저항형	±	±

첫째, 동조행위다. 목표와 수단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경우는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고안형이다. 성공하고 싶은 목표는 있지만 제도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일탈적 수단(제도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출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탈의 수단을 찾거나 고안한다.

셋째, 성공 목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제도적 수단을 갖고 있는 경우, 의례주의적 일탈행위가 발생한다. 관료제 조직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며 지내지만, 별다른 목표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넷째, 욕구도 목표도 없고, 제도적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은둔할 수 있다. 약물복용이나 히피생활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저항형이다.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변화와 혁명의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의 문화 목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문화적 혁명을 의미하고, 기존의 제도적 절차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 혁명을 뜻한다.

이와 같은 머튼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일탈적 선택에만 주목한 나머지, 일탈자가 다른 일탈자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무시했다. 둘째, 현대사회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목표도 보편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셋째, 사회적 지위가 노력해서 성취되는 사회에서는 아노미 개념이 유효하지만, 세습되는 사회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넷째, 상류층의 일탈과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주로 하류계층의 일탈과 범죄만 설명하게 되는 계급적 편견을 갖고 있다.

머튼은 제도적 수단의 유무만을 따졌다. 하지만 **‘비제도적 수단’에 접근하는 기회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비제도적 기회구조’**라고 한다. 어떤 특정지역에는 **‘범죄문화’**가 대대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범죄를 학습할 기회가 많다. **시카고학파의 서덜랜드(E.H.Sutherland)는 차별교섭이론**을 제시하여, 범죄행위가 범죄문화를 깊이 수용한 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에 이르는 기회도 다르게 주어져 있는 셈이다.

클라워드와 올린은 머튼처럼 일탈의 근원이 아노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일탈의 독특한 성격과 종류를 파악하려면 각기 다른 범죄문화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노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에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범죄문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면 애초의 아노미 상태와 관련 없이 범죄문화가 제공하는 비제도적 수단이 얼마나 이용가능한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다. 정리하면, 아노미 조건과 범죄문화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일탈과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다. 제도적 수단이 없는 아노미 상태와 비제도적 수단이 있는 범죄문화가 상승작용할 때, 일탈과 범죄는 유발된다고 한다. 이렇듯 클라워드와 올린은 머튼의 아노미론과 범죄문화론을 종합했다. 첫째, 동조형은 성공 목표를 내면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수단만 활용한다. 둘째, 고안형은 정당한 수단이 부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문화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다. 다만 폭력으로 남을 상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문

화 지역에 살기 때문이다. 안정된 범죄문화로 인해 폭력 사용이 도리어 자제된다. 셋째, 폭력형은 성공 목표를 내면화시켜으나 제도적 수단과 비제도적 수단 모두 갖추지 못했다. 정상 문화와 범죄문화 모두로부터 소외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기에 폭력에 의존하여 목적을 관철하려 한다. 넷째, 은둔형은 정당한 수단과 부당한 수단 모두 갖추지 못하는데다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로 약물을 복용하여 목적을 관철하려 한다.

(5) 과정론적 일탈이론

과정론적 일탈이론은 사회를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재로 보기보다는, 구성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본다(상호작용론 입장과 유사). 이들은 중산층도 하류층 못지않게 범죄를 자주 저지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통적 일탈론은 일탈행위가 먼저 나타나고 통제가 다음에 나타난다. 하지만 과정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낙인론’에서는 반대로, 사회통제가 먼저 있고 이후 범죄가 발생한다. 사회규범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통제기구가 범죄라고 규정해야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다.

과정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맛짜(Matza)의 중화이론**이다. 맛짜는 일탈자와 정상인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모두 규범을 어기고 싶어하지만 규범위반행위에 대한 **내적 압박(양심)을 중화시킬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내적 압박을 중화시키는 사람(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범죄와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인간은 모두 규범동조라는 극과 규범과괴라는 극 사이에서 왔다갔다 **표류(drift)**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동조행위가 겉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는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잠행가치가** 작동한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도 잠행적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일탈과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중화의 기법만 있으면 일탈은 가능해진다. 중화 기법에는 책임회피, 상해의 부인, 피해자의 부인, 범죄통제자에 대한 비난, 더 고상한 원칙에의 호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전통적 범죄이론처럼 범죄자를 마치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관점이다. 맛짜의 중화이론의 장점은,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서 일탈행위를 그만두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 또한 범죄자들도 정상인의 가치, 중산층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인과관계에 있어 중화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범행 전에도 얼마든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화 기법을 익힌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낙인이론은 범죄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을 범죄라고 지정하는 행위(낙인찍기)에 주목한다. 하워드 베커(H. Becker)는 사회집단들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규칙을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국외자(outsider)로 규정함으로써 일탈을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일탈자는 낙인이 적용된 사람이고, 일탈행위는 사람들이 일탈이라고 낙인찍은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일탈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아니라 ‘**범죄낙인행위**’를 조절해야 한다. 즉 국가가 특정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매춘, 마약, 노름, 낙태, 대마초 같은 특정약물 등 피해자 없는 범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수감정책 역시 낙인이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다. 교도소 수감생활이 범죄교정보다는 오히려 범죄동기와 범죄기법, 범죄 네트워크를 제공하므로 **기소유예** 등의 조치로 가급적 수감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선도 가능성이 많다면 기소유예 조치가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다.

1. 형벌이 엄격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면 범죄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범죄이론은 무엇인가?

- ① 베카리아의 범죄이론 ② 벤담의 범죄이론
- ③ 신고전적 범죄이론 ④ 공리주의적 범죄이론

정답 : 1

2. 다음은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에 대한 유효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맞는 글은 어느 것인가?

- ①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와 표현적 범죄 모두에 적절한 이론이다.
- ②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표현적 범죄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수단적 범죄에는 유효하지 않은 이론이다.
- ③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표현적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별로 유효하지 않은 이론이다.
- ④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와 표현적 범죄 모두에 부적절한 이론이다.

정답 : 3

3. 다음은 일탈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 ①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일탈이나 범죄도 사회체제 유지에 필요하며 유익하다고 본다.
- ② 뒤르켐에 의하면 이기적 자살은 집단결속력이 약한 집단일수록 많이 생겨나는 자살유형이다.
- ③ 뒤르켐에 의하면 규범이 와해되면 인간의 욕구는 통제를 벗어나 치솟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내기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탈을 아노미적 일탈이라고 한다.
- ④ 머튼은 아노미가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답 : 4

4. 다음 중 서로 관계가 **가장 먼 것** 한 가지는 어느 것인가?

- ① 고전범죄이론 ② 차별교섭이론
- ③ 시카고학과 ④ 범죄문화

정답 : 1

5. 일탈자나 동조자나 일탈하고 싶은 잠재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본 생각을 가진 학자는 누구인가?

- ① 베커(H. Becker)
- ② 맛짜(O. Matza)
- ③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
- ④ 머튼(R. Merton)

정답 : 2

6. 형벌의 강도는 범죄로 인해 훼손된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죄이론은 무엇인가?

- ① 고전론적 범죄이론 ② 신고전론적 범죄이론
- ③ 기능론적 범죄이론 ④ 과정론적 범죄이론

정답 : 1

7. 다음 중 뒤르켐이 인간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규범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는?

- ① 일탈 ② 아노미
- ③ 잠행가치 ④ 중화

정답 : 2

8. ‘아노미’를 경험하는 사람이 모두 일탈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탈이나 범죄문화와 접촉하는 기회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유발한다는 이론은 무엇인가?

- ① 아노미 이론 ② 중화이론
- ③ 낙인이론 ④ 기회구조론

정답 : 4

9. 서덜랜드는 범죄행위가 범죄문화를 깊이 수용한 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다음 중 서덜랜드의 이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아노미 이론
- ② 차별교섭이론
- ③ 낙인이론
- ④ 중화이론

정답 : 2

10. 다음 중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② 모든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감정책을 선호한다.
- ③ 범죄는 형법의 제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 ④ 일단 범죄가 확인되면 가능한 한 기소유예의 선고를 피하도록 권고한다.

정답 : 3

11. 맛짜(Matza)는 모든 사람을 규범동조라는 극과 규범파괴라는 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누구나 규범파괴에 대한 양심적 압박을 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일탈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표

① 책임회피 ② 양심의 통제
③ 잠행가치 ④ 낙인

정답 : 3

12. 다음 중 고전론적 범죄이론의 주장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형벌에 등가주의 원칙을 주장했다.
- ② 법집행의 예측성을 강조했다.
- ③ 사면제도를 비판했다.
- ④ 법집행의 엄격성을 강조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했다.

정답 : 4

13. 고전론적 범죄이론과 신고전론적 범죄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① 고전론적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나 신고전론적 범죄이론에서는 법집행의 예측성을 강조했다
- ② 고전범죄이론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했으나, 신고전 범죄이론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했다는 점
- ③ 사면제도에 관한 고전론적 범죄이론과 신고전적 범죄이론이 모두 반대했다.
- ④ 고전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를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신고전 범죄이론은 표현적 범죄를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

정답 : 2

14. 일탈(또는 범죄)자나 비일탈자(또는 정상인)이나 그 본성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뒤르켐 ② 머튼(R. K. Merton)
③ 서덜랜드(E. Sutherland) ④ 맛짜(Matza)

정답 : 4

15. 다음은 머튼의 일탈이론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 글이다. 잘못된 비판은 어느 것인가?

- ① 머튼은 일탈자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도외시 했다.
- ②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가치나 목표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정했다는 점
- ③ 귀속적 사회에서는 아노미 개념이 유용한 개념일 수 있으나 업적적 사회에서는 아노미 개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
- ④ 일종의 계급적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

정답 : 3

16. 다음 중 기능론적 일탈이론에 속하지 않는 이론은 어느 것인가?

- ① 낙인이론
- ②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
- ③ 머튼의 아노미 이론
- ④ 클라워드와 올린의 기회구조이론

정답 : 1

12장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1) 집합행동

사람들의 감정이나 인간의지의 집단적 표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행동, 두 사람 이상 때로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적인 행동을 **집합행동** 혹은 **군집행동**이라고 한다. **블루머(Herbert Blumer)**는 초보적인 형태의 군중행동과 지속적인 형태인 사회운동으로 나눈다. **군중행동**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며 비조직적인 집합행동으로, 행동의 특성이 감정적이고 불안정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사회운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조직적인 집합행동이며, 목적이 분명하며 프로그램과 계획 하에 진행되기에 예측가능하며 감정에 크게 휩싸이지 않는다.

(2) 군집의 종류

군중(crowd)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모인 사람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 일시적으로는 공통의 이해와 태도를 지니지만 관심의 대상이 사라지면 쉽게 해산된다. 동일한 공간에 가까이 있지만 상호작용은 최소한에 머문다. 군중의 종류에는 임시적 군중, 인습적 군중, 표출적 군중, 능동적·활동적 군중이 있다. '임시적 군중'은 임시적으로 어떤 사건에 관심이 있어 모인 사람들이다.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모인 사람들이나 약장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예이다. '인습적 군중'은 임시적 군중보다는 행동이 조직적이고 규칙적이다. 음악회나 경기장의 관중들이 그 예이다. '표출적 군중'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임에 참석했다가 감정이 격화되거나 흥분한 군중들이다. 정서적 만족을 얻는다. 부흥회에 모인 신도들이 그 예이다. '능동적·활동적 군중'은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특성이 있는데, 폭동이 그 예이다.

대중(mass)은 군중보다 규모가 큰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군중과 달리 일정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고 널리 퍼져 있다. 대중은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질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한 집단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게다가 성원 간에 상호작용도 없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중(public)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공중은 의견이 뚜렷하며 비판적이다. 쟁점이 해결되거나 사라지면 공중도 그에 따라 해체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공중의 의견이 바로 여론(opinion)을 형성한다.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공중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

(3) 사회운동

사회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뚜렷한 목표가 있다. 둘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의 당위성과 행동방향을 보여주는 이데올로기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슬로건, 노래, 집회 등 일정한 의식행위를 통해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다섯째,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다. 여섯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되기에, 시민운동단체가 되는 등 제도화에 이르기도 한다.

사회운동은 어떻게 발생되고 전개되는가? 스멜서(N. Smelser)의 **부가가치 이론**에 따르면, 여섯 단계의 조건이 있어야 사회운동이 일어난다. 첫째, '구조적 유발성'이다. 집합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적 긴장'이다. 이는 구조적 유발성을 사회성원들이 인지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인종차별, 남녀차별, 빈곤 등 여러 가지 갈등, 박탈, 불분명한 상황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일반화된 신념'이다. 성원들이 겪은 사회적 상황을 어떤 의미체계를 공유함으로써 구조적 긴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다. 넷째, '촉발요인'이다. 일반화된 신념을 가진 집단에게 불을 붙여 집합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다. 다섯째,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이다.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려면 관련자들의 행동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물론 초보적인 수준의 조직화이다. 여섯째, '사회통제 기제'의 작동이다. 집합행동의 동원을 억제하려는 여러 정치사회기구들의 통제가 있다. 사회통제 기제가 효율적면 집합행동이 억제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집합행동은 더욱 촉진된다.

사회운동을 싸이클을 설명하는 **주기이론**은 사회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시초단계 : 혼동, 불안, 적개심, 불만 등이 사회에 팽배한 단계. 루머가 횡행하고 소외감이 널리 퍼진 상태. 이 단계에서는 선동가들이 지도자 구실을 한다.

-민중화단계 : 선동과 집합적인 자극으로, 개인들은 자신의 문제와 불만이 자신이 겪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예언자나 개혁가가 지도자가 된다.

-형식화단계 : 흥분과 선동은 오래 가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정 프로그램이 생겨나며, 전략을 발전시킨다. 핵심 성원들은 토론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정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적인 지도자와 정치적 수완이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

-제도화단계 : 사회운동이 목표를 달성하여 제도권으로 흡수되거나, 새로운 사회제도가 사회질서가 수립되는 단계이다. 초기의 이상주의적 열정은 사라지고 보수적 성격이 나타난다.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기성 질서의 편에 서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을 견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행정집행자들이 가장 능률적인 지도자이다.

(4) 혁명

혁명은 사회운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혁명은 하나의 지배집단이 또 다른 지배집단에 의하여 교체되는 과정이다. 혁명은 대체로 정부 전복, 사회적 가치, 목표, 법규, 권위와 권력의 위계, 현존 사회적 분업까지 전복시키는 급격하고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변동이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혁명과 반란을 구분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쉽다. 혁명은 기존 사회질서를 변혁하여 새로운 사회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반란은 단순히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농민폭동은 반란의 대표적인 예이다.

혁명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가장 고전적인 견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이다. 그들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 즉 경제적 요인이 혁명의 원인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급의 양극화를 낳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

타리아 계급간의 대립이 발생하고, 수적으로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이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단순한 경제적 궁핍 뿐 아니라 경제적 격차에 의해 생겨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회에서도 상대적 격차에 의해 혁명이 발생가능한 셈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좀 더 정교하게 파고들어 간 사람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다. 토크빌은 신분의 장벽 때문에 경제적 여유를 가진 부르주아 계급들이 귀족계급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프랑스혁명이 발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혁명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호황 속에서 오히려 계급간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한다. 경제적 호전으로 기대치는 상승하는데 기대만큼 사회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더 고조되어 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데이비스(James, C. Davis)의 J곡선이론은 혁명이 단지 경제적 요인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성원들의 '심리적 상태'가 혁명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객관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지속되어 욕구수준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욕구가 계속 충족되리라 기대하는데, 이후 경제적 상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욕구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불안과 혁명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 다음 중 셋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다른 하나는 성격상 그것들과 다르다.
그 **다른** 한 가지는 어느 것인가?

- | | |
|------|-------|
| ① 군중 | ② 결사체 |
| ③ 대중 | ④ 공중 |

정답 : 2

2. 현대사회에서 여론 형성의 주체는 무엇인가?

- | | |
|----------|----------|
| ① 능동적 군중 | ② 활동적 군중 |
| ③ 대중 | ④ 공중 |

정답 : 4

3. 다음 중 블루머가 분류한 다양한 군중 중 한 지역에 모여 있지만 상호간에 동일체감이 없고 내부조직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중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 | |
|----------|----------|
| ① 임시적 군중 | ② 인습적 군중 |
| ③ 표출적 군중 | ④ 활동적 군중 |

정답 : 1

4. 다음 중 종교운동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믿음이나 가치, 규범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 | |
|------------|--------------|
| ① 복고적 사회운동 | ② 개혁주의적 사회운동 |
|------------|--------------|

- ③ 혁명적 사회운동 ④ 표출적 사회운동

5. 다음 중 군중행동과 구별되는 사회운동의 특성을 서술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뚜렷한 목표가 있다.
- ②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역할 구분이 미약한 편이다.
- ④ 일시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스멜서는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부가가치 이론에서 여섯 단계의 조건이 있어야 사회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여섯 단계 중 어떤 집합행동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사회구조적, 문화적 선행요건을 가리키는 것은?

- ① 구조적 유발성
- ② 구조적 긴장
- ③ 일반화된 신념
- ④ 촉발요인

7. 다음 중 혁명에 관한 데이비스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혁명의 원인이다.
- ② 경기의 호황 속에서 계급간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 때 혁명이 발생한다.
- ③ 실제의 사회경제적 조건보다 사회성원들의 심리 상태가 혁명의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다.
- ④ 혁명은 사회해체에서 오는 일종의 사회 병리현상이다.

8.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스멜서(N. Smelser)의 부가가치이론에서 구조적 유발성과 구조적 긴장 다음 단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① 촉발요인 ②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
③ 일반화된 신념 ④ 사회통제 기제의 작용

9. 사회운동의 주기이론에서 볼 때 사회운동이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워나가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 ① 민중화단계
- ② 형식화단계
- ③ 제도화단계
- ④ 구조조직단계

10. 혁명(revolution)과 반란(rebellion)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글은?

- ① 반란은 단순히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 ② 혁명은 기능적으로 미분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③ 반란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④ 혁명은 기존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집단적인 행동이다.

정답 : 1

11. 프랑스 혁명에 대한 토크빌(A. Tocqueville)의 해석은 무엇인가?

- ① 프랑스 혁명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주된 원인이었다.
- ② 프랑스 혁명은 신분적으로 상승되어 가던 부르주아 계급이 귀족계급과 동일한 정치·신분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 ③ 프랑스 혁명은 사회해체에서 오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폭발한 것이다.
- ④ 프랑스 혁명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승이 자본가의 자본 축적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노동자의 불만 때문에 발생했다.

정답 : 2

13장 사회변동과 사회발전

(1) 사회변동의 의미

구조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변동을 사회변동이라고 한다. 사회변동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시간)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변동의 내용·규모(폭과 깊이), 속도 그리고 변동의 성격을 모두 다룬다.

(2) 사회변동 이론

사회변동 이론은 크게 사회변동의 방향에 관한 것과, 사회변동의 원인을 밝히고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진화론적 관점과 순환론적 관점이 있다. 사회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기술혁신이 사회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관점과 인간의 의식·가치관 같은 관념이 사회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또한 사회체계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기능론적 견해가 있고, 사회체계의 갈등이 사회변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갈등론적 견해가 있다.

진화론은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는 19세기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생물유기체가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자연도태가 이루어지고 살아남은 생물체는 적응력이 강한 생물체라는 논리를 인간사회의 변동과정에 적용하였다. 진화론의 기본 개념인 적응, 진보, 진화, 방향성 등이 사회변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로부터 인간사회가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진보한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스펜서**는 동질성으로부터 이질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진화로 보고, 강제적 협동에 기초한 '군사형 사회'에서 자발적 협동, 계약적 관계, 개인의 창의성에 기초하는 '산업형 사회'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스펜서는 산업형사회가 군사형사회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진화가 꼭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뒤르켐**에게 진화란 분업의 발전과 분화이다. 뒤르켐은 분화된 사회를 통합하는 문제를 고민하였는데, 유기적 연대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따라 사회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변증법적 유물론 혹은 변증법적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사회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동하기 보다는, 어느 순간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로 변동한다.

-**신진화론**은 법칙적이고 단선적인 과거의 진화론을 수정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관점과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문화변동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사회학적 관점의 학자에는 파슨스, 아이젠슈타트, 스멜서 등이 있는데, 사회체계가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진화한다고 보고,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마다 특수하게 나타나는 특수요소도 있다고 본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학자에는 화이트(Leslie White)와 스튜어드(Julian Steward)가 있다. **화이트**는 문화는 그 자체가 성장 발전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문화 자체가 진화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스튜어드**는 문화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적응을 하는 문화에서는 공통적인 규칙성이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적응방법을 모색해온 문화는 그 문화에 가장 적합한 변동의 길을 택한다. 즉 문화도 여러 갈래로 진화해 간다는 다선형 진화론인 것이다.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세계문명의 진화를 ‘도전’과 ‘반응’의 과정으로 보았다. 문명의 흥망성쇠는 주위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반응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과정이 나선형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나선계단 이론’이라고 한다.

순환론은 사회나 문명도 유기체처럼 생성, 성장,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진화론은 사회변동을 발전한다는 개념으로 파악하지만, 순환론은 특정한 방향성 없이 생성, 성장, 쇠퇴의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순환론자에는 이븐 칼둔, 소로킨, 파레토 등이 있다.

-**소로킨**은 세 가지 사회문화 체계를 구분하였다. 관념지향형 문화에서는 신과 영적 세계만을 진정한 실재로 보고, 감각지향형 문화에서는 감각적 세계만이 실재라고 보아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이 강조된다. 이상주의적 문화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형태이다. 소로킨은 역사는 관념지향형과 감각지향형이 시계추처럼 왕복한다는 순환론을 제시하였다.

-**파레토**는 ‘잔기(residue)’와 ‘파생체(detritives)’를 구분하였다. 잔기는 인간 의식 속에 존재하는 항구적인 기본 감정이고, 파생체는 개인이 자신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신념을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는 정신적 요소를 말한다. 엘리트순환론은 여우형 엘리트와 사자형 엘리트의 순환과정으로 역사를 본다.

균형론은 사회를 균형잡힌 체계로 보고 사회변동을 생물유기체의 유지과정으로부터 이론을 유추한다. 균형론의 대표자인 파슨스는 항상성(homeostasis)을 강조하였다. 생물유기체는 자연 치유능력이 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파슨스에 의하면, 사회란 상호의존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분들은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의 한 부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 전체 사회의 균형이 교란되면 다른 부분들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변동이 뒤이어 일어나 긴장을 감소시키고 사회체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회복한다. 하지만 파슨스의 균형론은 혁명과 같은 급격하고 총체적인 사회변동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

갈등론은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지배층의 강제력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는 항상 갈등이 밀에 깔려 있고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의 원인은 갈등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관계에서 갈등이 나온다고 했지만, 다렌도르프는 상명하복의 권위관계로부터 갈등이 나온다고 보았다. 권위의 배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코저는 갈등이 집단의 약화나 해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강화해 집단결속력을 고양시키는 기능도 한다고 보았다.

사회변동의 요인을 물질로 보느냐, 관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기술결정론**과 **관념론**을 살펴보자. 기술결정론은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대표적이고, 오그번의 문화지체론도 있다. 오그번은 기술이 먼저 변하고 그 후에 기술에 걸맞는 가치와 규범이 변하여 사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관념론은 대표자적으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다. 칼빈주의이 예정설이 직업소명설을 야기하여 근검절약하고 사업에 재투자하는 금욕적인 사업가를 만들었고, 사업가들의 이러한 행태가 자본축적을 낳아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헤이건**은 '창조적 퍼스낼리티'가 경제발전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맥클리랜드**는 단순한 이윤추구보다는 '성취욕구'가 강해야 보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3) 근대화

근대화는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경제발전, 민주화를 의미하는 정치적근대화, 교육과 기회균등, 사회복지가 주어지는 사회적 근대화, 나아가 근대화된 심리를 의미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근대화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근대화를 단계적 경제발전으로 보는 견해는 **로스토(Walt. W. Rostow)**가 제시했다. **전통사회 단계, 도약준비단계, 도약단계, 성숙기, 대량소비단계**가 그것이다.

호설리츠(B.F. Hoselitz)의 근대화이론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올수록 점점 더 **감정중립성, 제한성(한정성), 보편주의, 업적주의, 자기지향적 행위특성**이 지배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화된 행동유형을 파악했다.

근대화이론은 앞서 살펴본 단선적 진화 모델을 전제하였다. 그래서 사회는 앞으로 근대화될 것이며, 근대화될 사회는 먼저 근대화된 서구사회와 유사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서구 사람들의 가치관과 유사해질 것이라고 보아 근대화가 지향하는 사회 모델은 서구사회라고 보았다. 전통은 근대성과 양립불가능하므로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극복해야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한 나라 저발전의 원인을 해당 국가 내부요인만으로 설명했다. 사실 국제관계와 세계체제에서 그 국가의 위치를 살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저발전 국가는 스스로를 발전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고 말았다.

요즘의 사회학자들은 서구중심적인 근대화 이론을 비판한다. **거스필드(Gusfield)**는 전통과 근대성이 반드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호설리츠**는 전통과 '전통주의 이데올로기'를 구분하였다. 전통 그 자체는 전통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근대화 과정에 특이 된다는 것이다. **배링턴 무어(B.Moore)**는 근대화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래의 단선형 근대화 이론을 극복하였다. 무어는 농업중심사회에서 근대공업사회로 넘어오는 과정

에서 지주와 농민 계급의 역할에 따라서 근대화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경로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도시 상공업자가 왕과 귀족의 세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파시즘’의 길이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부르주아 세력이 강력하지 못하여,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가던 부르주아 세력이 불만을 가진 지배 계급과 결탁하면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공업화의 속도는 빨랐지만,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거친 뒤 파시즘으로 귀결되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의 길이다. 여기서는 농업에 기반한 토지귀족이 너무나 강력하고, 도시 상공업자는 미약한 나머지 토지귀족의 착취가 자본주의 도입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농민계급들이 구체제를 전복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렴이론은 근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긴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는 결국 모두 유사해질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의 핵심 부분에서는 모든 사회가 유사해져 간다는 것이다.

(4) 종속이론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이 사회 내부의 전통적 구조 때문이라는 근대화 이론을 거부하고,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과의 경제적 종속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종속이론은 저발전의 원인을 선진자본주의 사회와 후발국들 간의 불평등한 교환관계에서 찾는다. 여기서 불평등한 교환관계는 각 나라가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중심이나 주변부냐에 따라 형성된다. 세계체제론자 월러스틴(I.Wallerstein)은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분류한 바 있다. 사미르 아민(S. Amin)은 주변부 사회가 어느 시점에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 편입되었는가 하는 주변화의 시점이 해당 사회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제3세계도 경제발전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증대되는 등 세계 경제체제의 주변부 사회로부터 반주변부 사회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에 반스(P. Evans)는 종속적 발전론으로 설명했다. 2차대전 이후 세계냉전체제와 중심부 사회의 다원화에 힘입어, 외교적 활동(외적 요인)과 자국 산업구조 개편(내적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부(軍府)와 기술관료의 앞장서서 민간 부분을 통제하고 자본축적에 성공하여 발전을 주도했다(발전국가). 그러다보니 강력한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민중저항을 초래하고, 민중저항을 통제하다 보니 관료적 권위주의가 고착되었다.

1. 다음 중 진화론과 관계가 **없는** 용어는?

- ① 적응 ② 진보
③ 순화 ④ 좀 더 바람직한 방향

정답 : 3

2. 다음 중 서로 공통점이 있는 개념들끼리 묶여진 그룹은 어느 것인가?

- ① 산업형 사회, 유기적 연대, 일차관계
- ② 군사형 사회, 유기적 연대, 일차관계
- ③ 군사형 사회, 기계적 연대, 이차관계
- ④ 산업형 사회, 유기적 연대, 이차관계

정답 : 4

3. 사회는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발전이론은 무엇인가?

- ① 신진화론 ② 변증법적 유물론
③ 진화론 ④ 의사진화론

정답 : 1

4.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에서 봉건적 생산양식에 적합한(상응하는) 생산관계는 무엇인가?

- ① 귀족과 노예 관계 ② 영주와 농노 관계
③ 귀족과 농노 관계 ④ 지주와 소작인 관계

정답 : 2

5.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글은 어느 것인가?

- 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 세력은 대자적 계급의 프롤레타리아이다.
- ②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즉자적 계급의 노동자와 대자적 계급의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 ③ 계급의식의 유무(有無)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생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④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소수의 지주들이 넓은 땅을 소유한 반면, 많은 수의 소작인들은 전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폭동이다.

정답 : 1

6. 사회변동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을 반증(反證)하는 대표적인 실증적 연구는 무엇인가?

- ① 자살론
- ② 관념지향형 문화와 감각지향형 문화
- ③ 자본론
- ④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정답 : 4

7. 다음 중 역사는 여우형 엘리트와 사자형 엘리트의 순환에 의해 발전해 간다고 주장한 학자는?

- ① 이븐 칼둔 ② 소로킨
③ 파레토 ④ 슈팽글러

정답 : 3

8. 다음 중 세계의 주요 문명들이 발생했다가 사라져 가는 힘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변동에 대한 나선계단형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 ### ① 마르크스

- ② 스펜서
- ③ 파슨스
- ④ 토인비

정답 : 4

9.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세력은 누구인가?

- ① 부르주아 계급
- ② 대자적 계급의 노동자
- ③ 즉자적 계급의 노동자
- ④ 지식인 집단

정답 : 2

10. 종속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 ①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에 종속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장
- ②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군사력이 강한 국가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
- ③ 세계체제에서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밝히는 것
- ④ 모든 비서구 사회는 서구사회의 발전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

정답 : 3

11. 무어(B. Moore, Jr.)는 농업중심사회에서 근대공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근대화 유형이 나타난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화 되었다고 보는가?

- ① 프롤레타리아 혁명 ② 파시스트 혁명
- ③ 부르주아 혁명 ④ 공산주의 혁명

정답 : 3

12. 근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시아 사회든 아프리카 사회든 산업화된 사회는 모두 유사해질 것이라고 보는 이론은 어떤 이론인가?

- ① 최소한 핵심부분의 수렴이론
- ② 근대화 주류이론
- ③ 종속적 발전이론
- ④ 수렴이론

정답 : 4

13. 호설리츠의 근대화이론에 의하면 다음 중 가장 근대화된 행동유형은 어느 것인가?

- ① 형이 동생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동생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행동
- ②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청탁성 발언을 하는 행동
- ③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갔는데, 민원창구 직원이 학교 선배라서 기다리고 있는 앞 사람보다 먼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행동
- ④ 교수가 학생 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시험성적 대로 성적을 부여하는 행동

정답 : 4

<보충심화> 한국의 사회발전에서 IMF의 의미 : 발전국가론 쇠퇴?

1990대 들어서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변화에 직접 노출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공업화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의 노동과 재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인건비가 급상승하였다. 재벌은 이러한 상황을 공격적인 투자와 세계화로 응전하였다. 때문에 재벌의 부채규모가 커지고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에 미치면서 외국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국내 금융기관과 재벌에 위기가 닥쳤다. 결국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발전국가 시절에 가능했던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철폐하는 각종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 재벌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금융시장 개방으로 자유화되면서, 한국경제는 세계적 환경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보충심화> 최근의 근대화 이론 :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k society>(1992)라는 저서에서 공업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대중들은 이제 과학자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성찰적으로’ 활용한다. 과학과 기술이 초기에 가졌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다. 성찰적 근대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가족, 지역사회, 계급 등과 갖고 있던 전통적인 유대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개인화’, ‘개인주의화’라고 부른다. 그 같은 전통적인 유대는 오직 시장관계(market relations)를 통해서만 연결된다. 그 결과 사회적 유대와 제약으로부터 고립된 개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점점 더 성찰해야 한다. 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일대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14장 21세기 정보사회의 전망

(1) 역사적 전환과 구조적 변화

21세기를 열도록 해 준 두 가지 큰 흐름 또는 사건은 냉전체제의 해체, 정보통신혁명이다.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냉전체제는 1985년을 기점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탈냉전 사건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크다. 첫째, 전체주의 체제는 국가의 지나친 지배력 때문에 오히려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가 물리력과 이데올로기로 통제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 국가의 결함은 체제 전체의 와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국가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미약하거나 없는 체제는 체제 안팎의 도전을 받을 경우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개방체제가 보다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오히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 셋째, 사상체제와 이데올로기 담론의 효율성을 크게 감퇴시켰다. 마르크시즘이라는 거대한 신념체제와 모더니즘 사상의 지배력이 감퇴한 것이다.

정보화는 탈냉전과 동시에 일어났는데, 자본과 기술과 인력에 관한 정보를 국경을 초월해

남나들게 함으로써 세계화 추세를 복돋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큰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2)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

정보통신망 구축이 갖는 사회·정치적 기능과 의미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연다는 것과 대규모 쌍방향통신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음성, 영상, 문자 등이 융합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쌍방향 통신이 일상화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허물어지며 원격적 일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원격진료, 원격은행거래, 홈쇼핑, 원격교육, 원격채판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어 편리한 시간에 사고싶은 물건을 사고, 편리한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일방향 통신이 지배하던 라디오와 TV시대는 대량정보전달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대중사회의 고독한 군중을 낳았다. 일방향적인 대중매체를 독점한 지배세력은 전체주의의 빅브라더로서 전횡을 일삼기도 했다. 물론 쌍방향통신이 일상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방향 통신의 권위주의적 기능을 쌍방향통신은 완화시킬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시청자는 대중사회의 시청자와는 달라져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가 될 것이고, 여러 자발적 시민 조직체가 활성화되어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가 가능해지고 있다.

(3) 정보사회의 변화모습

정보매체가 인격적인 사회화 주체인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상현실에 탐닉한다면 어린이는 고독한 상태, 현실과 괴리된 심리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전자공동체(사이버공동체)는 쌍방향통신을 통해 형성된다. 허나 가족과 같은 전통적 일차집단과는 다르다. 물리적 근접성과 면대면의 친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인간적 공감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쌍방향통신이 오감이 통합된 멀티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면 문자나 음성 한 가지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공동체보다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교육도 변화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고, 캠퍼스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이 출현하고 있다. 원격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원격교육은 열린 대학이 될 수 있으며, 엘리트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단련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조적 지혜가 중요하다.

정보혁명은 국경의 차단력을 낮추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사회는 지식산업이 중요해지는 지식사회이다. 그런데 앞으로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심화 보충> 정보화와 일자리의 변화

정보화는 일자리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기업의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수평적 조직화 등을 가져와 인력 수요를 감축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사무자동화로 기업 조직이 중간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중간관리직의 일자리가 줄

어떻게 된다.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의 보급 등으로 은행 창구업무가 줄어들면서, 단순 사무직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작업이 일반화되면서 타자수(typist)가 불필요하게 되었다.(중략)

정보화는 일자리를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케이블TV의 홈쇼핑과 인터넷 홈쇼핑이 확산되면서 홈쇼핑 진행자, 전화상담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택배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우체국서도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메일 보급으로 우편물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종을 찾아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보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약화와 불안정 고용(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고용)의 증가를 낳는다. 비록 지식정보산업의 증대로 ‘지식노동자층’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식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기존 산업의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평가들과 이미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정교한 정보통신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지식 부문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이테크 과학, 전문직, 관리직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리엔지니어링과 자동화로 인해서 대체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컨설턴트, 교사, 변호사 등으로 재훈련되어 협소한 하이테크 부문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이 아니면 기껏해야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비판사회학회(구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